

석사학위논문

감정과학에 근거한 『논어(論語)』의  
‘빈부’ 이해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Poor(貧) and Rich(富) in  
LunYu(論語) on the basis of Science of Feelings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전공

진 방

2022



# 감정과학에 근거한 『논어(論語)』의 ‘빈부’ 이해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Poor(貧) and  
Rich(富) in LunYu(論語) on the basis of Science of  
Feelings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논문을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28일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전공

진 방

2022

진방의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일

심사위원장 안 현 상 ①

심사위원 유 영 관 ①

심사위원 성 동 권 ①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차 례

국문 요약 .....	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중국 빈부의 분석과 문제 제기 .....	1
1. 중국 빈부의 문제 분석 .....	1
2. 분석에 근거한 문제 제기 .....	11
제2절 연구 방법 .....	13
1. ‘나’의 몸 .....	14
2. 감정과학 .....	18
제3절 연구 범위 .....	20
1. 연구 범례 .....	20
2. 연구 범위 .....	20
제2장 『논어(論語)』의 감정과학 .....	23
제1절 몸의 진실 .....	23
1. 엄마아빠나 .....	23
2. 이미 행복한 ‘나’ .....	30
제2절 몸이 느끼는 욕망의 진실 .....	35
1. 생김으로 놀이하는 몸 .....	35
2. 이미 행복한 ‘욕망’ .....	43
제3장 『논어(論語)』 감정과학의 빈부(貧富) .....	51
제1절 빈이락(貧而樂) .....	51
1. ‘빈’(貧)으로 존재하는 몸 .....	51
2.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	56
제2절 부이호례(富而好禮) .....	60
1. ‘부’(富)로 존재하는 감정 .....	60
2. 감정의 자기이해로부터 행복 .....	63
제4장 『논어(論語)』 감정과학의 행복 경제 .....	68
제1절 완전한 나와 너의 교차 .....	68
1. 나를 믿고 배우는 충신(忠信) .....	68
2. 너를 믿고 배우는 사의(徙義) .....	71
제2절 영원무한 사랑의 회계학 .....	74
1. 나의 이기적인 욕망 .....	74
2. 너를 사랑하는 나의 고생 .....	78

제3절 다 좋은 세상의 경제 .....	82
1. 덕(德)을 나누는 경제 .....	82
2. 성스러운 장엄천지의 경제 .....	87
제5장 결론: 현대 중국의 빈부 문제 해결 .....	92
참고 문헌 .....	96
논문 초록 .....	99

## 국문 요약

중국은 개혁 개발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행복을 얻고 빈부(貧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을 통해 빈부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현대 중국의 빈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바탕으로 『논어(論語)』에 나오는 “빈이락 부이호례(貧而樂 富而好禮)”를 분석해서 경제적으로 행복을 얻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 빈부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의 행복이 경제적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각종 신문 기사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불행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행복이 과연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으로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외적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자신이 최고의 완전성을 가지고 행복을 확인한다. 우리 안에서 경제적 행복을 이해하면서, 나아가 그 행복의 기초 위에 경제적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최종목적은 정확한 빈부관념을 수립하고 빈부문제를 해결하여 행복을 얻는 것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경제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인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있다. 한 가지 연구 방법은 ‘나’의 몸이다. 우리 자신의 몸이 없이는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하다.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론하기 전에 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른 연구 방법은 욕망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추구하는 감정과학인 이유이다. 우리의 몸은 그 현상의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 자체가 영원무한한 생명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의해서 인식된다. 욕망의 진실을 몸 자체의 영원한 진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과학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에서 배움으로써 그 몸 자체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아울러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으로 빈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과정은 주로 2장에서 4장에 있다. 2장부터 4장에 걸치는 3개의 장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욕망의 진실을 밝힌 다음, 빈부(貧富)에 대한 감정과학의 이해가 무엇인지 정리했다. 그 후 감정과학의 경제학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은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었음을 밝혀냈다. 감정과학은 몸 그 자체의 진실로부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연역한다.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으로 욕망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논어』의 감정과학이다.

『논어(論語)』에서 “빈이락 부이호례 (貧而樂 富而好禮)”라고 근거하여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빈부(貧富)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두 개의 시선(視線)을 제시했다. 하나는 경제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몸의 진실 안에서 빈부(貧富)를 이해하는 것이다. 오직 감정과학의 빈부(貧富)만이 경제적 행복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감정과학으로 빈 (貧) 을 이해하면, 나는 본래부터 영원 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현상이 '빈 (貧)' 이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행복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학의 빈부 분석에 따라 생명과 사랑이 자신의 존재 기반임을 확인한다. 감정과학의 공효(功效)로서 다 좋은 세상의 경제는 자신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논어 (論語)』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경제적 빈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는 수동적 해석으로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행복과 정의 그리고 평등을 누릴 수 없다. 오직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우리 스스로 자기 진실을 참답게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의 완전성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행복으로 경제를 이해할 때 다 좋은 세상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 경제는 무한하게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발전이 가져오는 풍요와 행복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그러므로 본 논문은 경제적 빈부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정확한 빈부관을 수립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진실을 감정에 근거해서 감정과학으로 이해해야만 경제적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경제, 빈부, 논어. 몸, 행복

## 제1장 서론

### 제1절 중국 빈부의 분석과 문제 제기

#### 1. 중국 빈부의 문제 분석

중국은 개혁 개발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균질하게 돌아가지 못했다. 모든 시민들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공평하게 향유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빈부격차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 중국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의 논의는 중국에서 발표된 신문 기사와 논문 잡기에 근거한다.

##### 1) 신문 기사

###### (1) 중앙 방송국 인터뷰(央視訪談)

지금으로부터 대략 700년 전인 중국 원(元) 시대의 왕실보(王實甫, 1260~1336)가 쓴 『서상기(西廂記)』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장수와 재상은 가난한 가문에서 나온다.<sup>1)</sup>

그러나 그 이후 2011년에 이르면, 한 교사가 인터넷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빈한한 집안에서 귀한 자식이 나오기 힘든 시대다.<sup>2)</sup>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의 생각이

---

1) 王實甫(왕실보), 『西廂記(서상기)』 (人民文化出版社인민문학출판사, 1995), pp. 1295-1307.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將相出寒門。”

2) 永樂大帝二世(영락대제2세), 『寒門再難出貴子(빈한한 집안에서 귀자식이 나오기 힘들다)』 (天涯천애, 2011), p.6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這個時代寒門再難出貴子。”

바뀐 것일까? 교사의 말을 분석해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 그만큼 학력과 그에 기초한 직업은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원 나라의 『서상기(西廂記)』와 달리 현대 우리는 ‘돈=교육’ ‘돈=행복’이라는 지배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생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017년에 방영된 중앙 방송국의 한 토크쇼를 보면, 인간의 행복과 학력이 반드시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오직 이 이유로 우리의 행복과 교육을 경제력(돈의 총량)에 종속(從屬)시키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교육이 반드시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경제 영역에서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크쇼는 ‘방중망’(龐衆望)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원(元) 시대 극작가 왕실보(王實甫)의 『서상기(西廂記)』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복과 교육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지배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가꿀 수 있는 행복이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행복과 평등은 이 사실로부터 나온다.

방중망이 토크쇼에서 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방중망(龐衆望): 나는 우리 가정에 뭣뭣하지 못한 점, 토론하지 못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좋고, 내 친척들도 너무 좋고, 나의 가정은 토론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나는 그들이 마땅히 부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3)</sup>

대학입시에서 수석의 영예를 차지한 방중망(龐衆望)은 가정형편이 아주 가난했다. 심지어 아버지는 정신장애자였고 어머니는 신체 장애자였으며, 자신은 선천성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녀마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으며, 결국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청화

3) 龐衆望(방중망), 央視網(중앙 인터넷) “龐衆望：長大成人,” <https://tv.cctv.com/2017/09/17/VIDEY3UrHMLhQTYdZL2sPaTY170917.shtml>(검색일: 2022. 02. 2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龐衆望：我沒有覺得我的家庭有一點拿不出去的，有一點不值得去討論的，因為我媽媽那麼好，我姥姥姥爺也那麼好，我的每一個親人都那麼好，我的家庭有哪裏是拿不出去討論的呢，我覺得他們應該羨慕。”

대학(淸華大學)에 입학하였다.

방중망(龐衆望)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극도로 빈천(貧賤)하다. 만약 우리가 바로 앞에서 제시한 등식, 즉 ‘돈=교육=행복’이 인생의 진리라면 방중망의 성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방중망(龐衆望)이 빈곤한 생활 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빈부(貧富)의 문제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며 이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본문에서 다루기 이전에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방중망(龐衆望)에게 가난은 부끄럽다거나 불행과 실패의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나는 우리 가정에 떳떳하지 못한 점, 토론하지 못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서 가난은 숨겨야 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좋고, 내 친척들도 너무 좋고, 나의 가정은 토론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나는 그들이 마땅히 부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가족’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생각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이미 밝혀졌다. 뜻밖에 가족의 소중함을 지킨 결과가 경제의 행복과 교육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학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좋은 직업이라는 등식이다. 그러나 방중망(龐衆望)의 사례는 빈천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없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본래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뜻밖에 돈으로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 모든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즉, ‘경제력=행복=학력=직업’의 등식이 ‘가족의 소중함=행복=학력=직업=경제력’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빈부를 둘러싼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 위 두 가지 사례(교사와 방중망)를 분석해보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방중망(龐衆望)은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는 ‘의지력’으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지력(意志力)’이다. 그러나 방중망(龐衆望)의 이야기를 보면, 그에게는 의지력이 없다.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방중망에게 행복의 방법은 엄밀히

말해서 경제력을 대표하는 돈도 아니며, 더 나아가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의지력은 더더욱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행복과 성공을 설명하는 기존의 설명 방식에 근본적인 의심을 품어 볼 수 있다.

① 방중망(龐衆望)은 어떻게 해서 비천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

②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

이 물음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의식은 엄밀히 말해서 방중망(龐衆望)이 아니다.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불행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행복이 과연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으로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왕이(網易) 뉴스4)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발생 상황은 사람들의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여행업, 요식업, 부동산 등 모든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 부동산 블로거가 코로나 시대 빈부의 규모에 대해 한 말이다.

코로나 시기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진다고 지적했다. 위기를 비관하는 사람은 위험을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기회를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sup>5)</sup>

이 뉴스 보도에 의하면, 가난한 환경이나 조건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뉴스는 “위기를 비관하는 사람은 위험을 보고, 낙관적인 사람은

4) ‘網易(왕이) 뉴스’는 網易(왕이) 특색의 뉴스 기사와 사진, 화제 투표, 주요 뉴스 푸시, 오프라인 읽기, 트래픽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5) 大胡子說房(털보가 방을 논하다), 網易(왕이) “一個殘酷的事實，疫情把中國貧富差距拉得更大了！,” <http://house.hexun.com/2022-04-14/205720170.html>(검색일: 2022. 03. 24).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危機危機，悲觀的人看到的就是危險，而樂觀的人才看得到機會。疫情當前，窮人越窮，富人越富。”

기회를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라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했다.

위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은 결코 경제적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환경이 나쁘지만, 환경이 나쁘면 모두가 가난해질까? 그 결과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일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은 망연자실함으로써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매우 드물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보며 배워야 할 것은 이 극히 드문 사례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다.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며 그만큼 매우 새롭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막연하게 변화에 맡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결론이 우리의 행복에 결정된 진실일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방중망(龐衆望)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경제적 환경이나 조건에 종속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 가꾸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경제와 인간, 이 둘 사이에 경제 현상만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지만, 이와 정반대로 인간으로 경제를 이해하면, 방중망(龐衆望)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결론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 영역에서의 행복은 엄밀히 말해서 경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경제 문제를 단순히 감각적 현상에 의존함으로써 해석하는 기존의 설명을 탈피하려는 근본 이유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탐구는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확인하는 데에 있다. 우리 안에서 경제의 행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행복에 기초하여 경제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동 강령이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빈곤이나 궁핍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경제의 행복이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 2) 논문 잡기

### (1) 야란재경(夜蘭財經)<sup>6)</sup>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가운데 삶의 기본 터전으로서 ‘집’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재산 및 부동산에 대한 관념 가운데 생활의 터전이 되는 집은 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래의 경제 기사는 집이 빈부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집 갖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이 있으면 소속감과 안전감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택대출압력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고 한다. 대부분 젊은 나이에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 자신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자신에게 투자하기보다 대출금 상환에 더 많은 정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과 과소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소득을 늘릴 재테크가 없다는 점이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sup>7)</sup>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중국의 시민들이 이해하는 경제의 행복은 주로 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적으로 집의 유무 및 집과 관련된 은행대출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

사실 이러한 접근과 분석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욕망의 진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집과 관련된 경제의 행복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집과 좋은 주거 환경은 욕망의 공통된 것이며,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욕망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엄밀히 말해서 집과 관련된 경제의 행복은 ‘집’ 이전에 ‘욕망’이 먼저 존재한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어길 수 없다. 욕망이 없으면 집을 욕망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욕망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욕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복의 기초는 욕망 그 자체이다. 이 결론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다. 욕망이 없으면 좋

6) ‘夜蘭財經(야란재경)’은 금융 및 경제 분야의 뉴스를 발간하는 바이두 공식 계정이다.

7) 夜蘭財經(야란재경), 2022, “中國‘貧富差距’有多大? 在全球是什麼水准? 統計局給出準確數據, “ <https://baijiahao.baidu.com/s?id=1721734290397090292&wfr=spider&for=pc>(검색일: 2022. 03. 01).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中國人在擁有自己的家這件事情上看的非常重要。在我們的意識裏面有家就有歸屬感和安全感，因此很多人即使面對房貸壓力也要買房。也是因為這個因素，大部分的人年紀輕輕就開始還貸款，這對於他們自己的未來發展有著很大的影響，因為他們將更多的精力用在償還貸款上而不是投資給自身，這也讓我國普通人和那些優秀的人差距慢慢變得更大。因為房貸和超前消費的觀念導致很多人背負巨額債務，慢慢變成月光族，根本沒有錢可以理財來增加收入，這一點是導致貧富差距越來越大的根本因素之一。”

은 집과 주거 환경을 향한 욕망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이 집과 주거 환경 보다 더 중요하다. 경제 현상을 그에 대한 실질로서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기초로서 존재하는 ‘욕망’에 집중하면, 엄격한 뜻에서 경제의 행복은 욕망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① 욕망이 이미 행복이라면 경제적 행복을 욕망하는 그 기초가 결핍이 아닌 충만의 행복이다.

② 욕망이 결핍 구조라면, 당연히 욕망은 경제의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미 불행이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생각해 보면, 결국 경제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욕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경제적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욕망은 몸이 존재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위한 집을 욕망하기도 하며, 옷을 욕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몸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몸에 고유한 욕망에 의하여 경제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욕망 그 자체에 고유한 행복의 선후(先後)를 확인하면, 욕망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몸에 대한 이해가 욕망에 대한 이해로 직결되며, 이는 욕망의 행복 추구를 이해하는 기초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경제의 행복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 핵심은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욕망의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의 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몸의 진실과 몸의 본질로 존재하는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방중망(龐衆望)의 행복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행복에 대한 참다운 정의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본 논문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상업시대』(商業時代)<sup>8)</sup>

---

8) ‘『商業時代(상업시대)』’는 1982년 중국상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중국상업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영향력 있는 전문 학술지이다.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문서인 『논어(論語)』에는 ‘빈부’(貧富)와 관련된 다양한 논술들이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論語)』를 통해 경제적 행복과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볼 수 있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언급을 먼저 살펴보겠다.

빈이락 부이호례자야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sup>9)</sup>

위의 원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빈부(貧富)이다. 공자의 학문의 기록한 『논어(論語)』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빈부(貧富)에 대한 성찰을 『논어(論語)』에 기초하여 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한다. 조중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난을 즐기고 부유해도 사양하기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sup>10)</sup>

이 명제는 본 논문이 이해하는 경제적 행복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빈부관념을 품고 있다.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빈이락(貧而樂)’이다. 이에 대한 조중빈의 번역은 “가난을 즐기고”이다.

이 말을 듣는 즉시,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 가난을 뜻하는 ‘빈’(貧)인데, 공자는 뜻밖에도 여기에 즐거움의 ‘낙’(樂)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2,500년 전 공자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유교문화의 경제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방중망’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21세기에도 공자의 ‘빈이락’은 유효하다.

‘빈이락’은 공자라는 한 철학자 자신만의 주제도 아니며, 유교문화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몸으로 생겨나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빈이락(貧而樂)은 엄밀히 말해서 어느 한 개인의 선호(選好) 판단이나 취사(取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이락을 우리 자신의 진실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경제의 행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신의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9) 『論語』, 「學而」 15장.

10)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55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논문의 핵심주제인 경제의 행복으로서 빈부(貧富)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논자는 『논어(論語)』의 1장 15절에 있는 빈부(貧富)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논어(論語)』의 빈부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하여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과 그 이외 다른 학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을 대표하는 조중빈의 이해와 중국학자 서전충(徐全忠) 이해를 비교해보자.

서전충(徐全忠)이 정의하는 빈부(貧富)의 개념 가운데 부(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지(富之)’는 경제 활동의 초급 가치 추구의 실현, ‘호례(好禮)’은 사회의 안정과 경제 윤리의 질서의 보장을 필요로 이러한 부의 도덕적 요구, 그리고 이러한 부귀는 더욱 고상한 차원으로 승화.<sup>11)</sup>

서전충에 의하면 부(富)는 경제 활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가치의 실현이다. 이것을 역으로 이해하면, 빈(貧)은 경제 활동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실현할 수 있는 가치의 부재(不在) 또는 상실이다. 이 경우 ‘빈이락’(貧而樂)은 절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부(富)에 대한 서전충의 정의는 단순히 물질적 · 도덕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다. 몸과 몸의 본질로서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한 본 논문의 논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욕망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위한 기초이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의 행복이 무엇인지 참답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빈부(貧富)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으로 접근하거나 그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해석일 수 없다. 서 교수는 몸 자체의 이해가 경제의 행복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으로 공자의 『논어(論語)』를 이해한 『안심논어』를 읽어 보자. 서전충과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중빈은 공자의 빈부(貧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니까 ‘가난을 즐긴다.’는 것은 가난하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따라 잘 다듬어진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빈곤이 결핍이나 하자가 아니다’라고

11) 徐全忠(서전충), “孔子經濟倫理思想的內涵與現代價值(공자의 경제윤리사상의 내용과 현대적 가치),” 『商業時代(상업시대)』 10(中國商業經濟學會(중국상업경제학회), 2013), pp. 144-145.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富之”實現了經濟活動的初級價值追求, “好禮”才能保證這種富裕在道德的需求之下, 保證社會的穩定與經濟倫理的有序, 並使這種富貴向更高尚的層面升華。”

바르게 생각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다.<sup>12)</sup>

조중빈의 개념 정의에서 핵심은 “가난하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따라 잘 다듬어진 논리”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가난을 결핍이나 하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이해하는 것이다. 가난을 결핍이나 하자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빈(貧)을 감각적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조중빈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잘 다듬어진 논리’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조중빈이 이해하는 ‘빈’(貧)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몸의 술어(述語)에 의존하여 생각하는 마음의 수동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경제적 빈천(貧賤)의 현상으로 ‘빈’(貧)을 이해하면, ‘빈’은 끝없는 결핍이지만 이와 반대로서 부(富)는 끝없는 결핍을 채워나가는 끝없는 결핍이다. 이 지경에서 ‘낙’(樂)과 ‘호례’(好禮)를 확인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빈(貧)은 끝없는 결핍이기 때문에 절망이다. 부(富)는 끝없는 결핍을 충족시켜야 하는 끝없는 결핍이기 때문에 절망임과 동시에 전쟁이다. 근본적으로 자기 밖에서 행복을 가져와야 하는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경제적 현상으로 빈부(貧富)를 이해하면, 그것은 현상에 대한 추측이나 해석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결국 절망과 전쟁으로 수렴된다. 우리가 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면, 조중빈이 주장하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현상’과 그에 대한 ‘해석’일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경제적 현상으로서 빈부가 내 몸을 설명하는 술어(述語)라면,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조중빈의 술어는 결국 그 현상 이전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몸’이다.

무한히 바뀌는 현상은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무한한 바뀌는 현상은 몸의 존재를 절대적인 진리로 확인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몸=사실’이라는 등식을 정립한다. 이 경우 몸에 대한 현상적 접근이나 그에 의존하는 해석은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배움은 ‘몸 그 자체’의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한 결과가 ‘빈이락’(貧而樂)과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여기에서 본 논문은 경제적 행복이 무엇인지 참답게 이해하고자 한다. 즉, 유교문화를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경제적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다.

조중빈에 의하면, ‘빈이락’(貧而樂)은 경제적 불평등이나 고난을 좋아한다는 뜻이

12) 조중빈,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56.

아니다. 가난을 실패나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가난’이라는 현상으로 ‘몸’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부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귀는 우리 모두가 행복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예(禮)를 둔다. 소위 승자독식(勝者獨食) 같은 것으로 어느 일방만이 터무니없는 폭리(暴利)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부(富)도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빈부(貧富) 관념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렇다면 ‘부이호례’(富而好禮)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또한 『논어(論語)』는 ‘빈’(貧)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는다. ‘락’(樂)을 말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당연히 ‘樂’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논의한 주제에 근거하여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의 ‘몸’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제현상만으로 빈부를 이해하면, 절대적으로 樂과 禮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방중망(龐衆望)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실하다. 그가 자신의 경제적 행복을 현상만으로 바라봤다면, 그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경제 현상으로 빈부(貧富)를 이해하지 않는다. 경제 ‘현상’ 이전에 경제의 ‘사실’로서 몸의 진실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경제의 빈부(貧富)를 이해하겠다. 이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의 행복을 현상으로 해석하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 잡기 때문이다. 현상에 의존하는 해석보다는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는 능동성으로 경제 현상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 더 완전하다.

## 2. 분석에 근거한 문제 제기

### 1)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빈부 문제를 왕동산(汪同山)은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투자의 성장력이 부족하다.

둘째, 새로운 소비열점이 많지 않다.

셋째, 국제시장에 큰 호전이 없다.<sup>13)</sup>

13) 汪同三(왕동산), 何德旭(하덕욱), “中國經濟現狀與前景(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中國社會科學院數量經濟與技術經濟研究所發展報告(중국사회과학원 수량 경제 및 기술 경제 연구소 발전 보고

왕동산(汪同山)의 분석은 나름대로 경제 현상에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투자, 소비, 수출은 모두 시민 주체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과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욕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 현상을 논의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기 이전에 그 실질로서 우리 자신의 ‘몸’과 몸이 느끼는 ‘욕망’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정립해야 한다. 왕동산이 진단한 경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연구하여야 할 것은 시민의 몸과 그 몸이 느끼는 욕망 및 그로부터 필연적인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 고유한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진행한다면, 그것의 실상은 약탈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결핍을 채우는 경제 활동은 ‘남들 보다 내가 더 많이’라는 구호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실상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경제도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경제는 결코 ‘호례’(好禮)가 아니다. 또한 자신의 가난한 경제 현상만으로 자신을 비판한다면, 결국 불행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낙’(樂)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결론은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의 행복이자 진리일 수 없다. 몸의 진실로부터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경제의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필연적 이치가 여기에 있다.

## 2) 몸 안에서 빈부(貧富) 이해

본 논문은 제1절 ‘중국의 빈부 문제 분석’에서 신문 기사와 논문 잡기를 인용함으로써 빈부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주제가 유의미한 이유는 현대 중국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빈부(貧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논문은 빈부의 문제를 현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방식으로 빈부를 규정하고 이해하면, 빈부 둘 모두 끝없는 결핍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경제의 빈부(貧富)를 ‘사실’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

서)』(1社會科學文獻出版社(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2), p. 408.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投資增長乏力，新的消費熱點不多，國際市場沒有大的起色。”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닌 사실로서 경제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배움은 그 즉시 ‘몸’ 그 자체로 향하게 된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경제의 빈부를 이해하는 것이 논문의 문제 제기이다. 빈부의 관념이 옳을 때 개인의 욕망과 감정이 충족되어 빈부 문제도 해결된다. 논자는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에 의하여 빈부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현대 중국의 빈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직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경제의 안정과 안녕 그리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세계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자기 스스로 빈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경제적 행복을 나누어 줄 뿐이다. 경제적 불행이나 폭력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이유로 본 논문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체가 우리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 안에서 빈부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감정은 신체의 진실을 떠날 수 없다. 몸이 느끼는 것이 감정이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욕망을 떠날 수 없다. 몸이 존재하며, 그것의 본질로서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망으로부터 감정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되고 변화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무한히 변화하는 몸과 욕망의 진실을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진실로 이해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이해로부터 경제의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으로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제2절 연구 방법

논문의 목적은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방법으로서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 방법은 지금 ‘나’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 스스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이 곧 모든 몸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연구 방법이 ‘나의 몸’인 이유이다. 첫 번째 연구 방법으로부터 두 번째 연구 방법은 자연스럽게 연역된다. 몸의 진실로부터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진실에 근거하여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 및 그것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이 욕망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추구하는 감정과학인 이유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경제 문제 가운데 가장 핵심

인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1. ‘나’의 몸

‘방중망’과 공자의 『논어(論語)』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행복은 경제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유로 경제 현상에 국한하여 빈부를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행복을 논의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 제기이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 제기에서 논의했듯이, 경제 현상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몸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몸이 없으면 그 어떤 경제현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자신의 몸이 생겨나야 하고, 생겨난 몸이 비로소 경제 활동을 하며 경제 현상을 만들어 낸다.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히 경제 현상으로서 빈부(貧富)와 그에 따른 행복을 논의할 때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주장은 우리 자신이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한다는 절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그 자체로 명명백백하다. 빈부(貧富)와 관련하여 경제적 행복을 이해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있다는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하는 문서는 당연히 공자(孔子, BC 551~749)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論語)』이다. 『논어(論語)』의 빈부 이해에 근거하여 현대 중국의 빈부를 이해하는 본 논문의 취지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논어(論語)』 「현문」 25장을 보면, 공자는 학문의 핵심이 우리 자신의 ‘몸’을 참답게 인식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 완 고 지 학 자 위 기 금 지 학 자 위 인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sup>14)</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공부했는데,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공부한다.”<sup>15)</sup>

14) 『論語』, 「憲問」 25장.

15)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324-325.

공자에 의하면 배움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위인(爲人)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결여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배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많은 몸의 현상으로 몸을 배운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상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그런 해석으로 학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자의 학문론이다. 이 사실은 위인(爲人)에 대비되는 위기(爲己)에 근거하여 분명하다.

자기를 공부한다는 뜻의 ‘위기’(爲己)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의 현상을 배우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 경우 어느 것이 진실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자기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상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반면에 자기의 진실은 자기의 영원불변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자기의 몸에 나아가 영원불변의 진실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 이상으로 자기를 위하는 공부는 없다.

공자의 ‘자기 배움’으로서 위기(爲己)를 위와 같이 정리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다.

- ① 과연 공자의 위기(爲己)가 자기의 몸을 배우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② 자기 몸을 배우는 공자의 학문이 자기 몸의 현상이 아닌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논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논어(論語)』와 그것을 계승하는 『대학』을 함께 봐야 한다.

자 路 問 君 子. 子 曰: 修 己 以 敬.<sup>16)</sup>

자로가 군자가 무엇이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공경한다.”<sup>17)</sup>

여기에서 군자(君子)는 ‘위기’(爲己)의 배움에 뜻을 둔 사람이다. 자로는 공자에게 군자가 무엇이나고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공자의 답이 ‘수기이경’(修己以敬)이

16) 『論語』, 「憲問」 45장.

17)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6.



다. 이에 대한 조중빈의 번역은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공경한다.”라고 한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위기(爲己)의 ‘기’(己)가 지금 자기의 ‘몸’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결론은 『대학』에 근거하여 더 이상의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 유교 문화의 학문을 정리한 『대학』은 하나의 경문(經文)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10개의 전(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문’은 다음과 같이 학문의 핵심을 제시한다.

자 천 자 이 지 어 서 인 일 시 게 이 수 신 위 본.  
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sup>18)</sup>

위의 인용에서 수신(修身)의 ‘신’(身)은 말 그대로 ‘몸’이다. 『논어(論語)』의 수기(修己)가 『대학』에서는 수신(修身)으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말할 때, 이때의 ‘나’는 지금 나 자신의 ‘몸’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진리에 대한 확인이 위본(僞本)이다. 학문의 기본은 자기 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논점으로서 공자의 학문이 몸에 대한 배움을 향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두 번째 논점은 첫 번째 논점에 근거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학』은 공자의 학문을 수신(修身)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다음,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살펴보겠다.

소 위 치 지 제 격 물 자 언 욕 치 오 지 지 제 즉 물 이 궁 기 리 아  
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即物而窮其理也.<sup>19)</sup>

여기에서 핵심은 ‘즉물이궁기리’(即物而窮其理)이다. 여기의 물(物)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번역할 수 있다.

즉 신 이 궁 기 리  
卽‘身’而窮其理.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卽身) 자기 몸(其)의 리(理)를 이해한다.

자기 몸의 리(理)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즉, 몸의 무한한 변화를 그것의 현상에 의존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

18) 『大學』，「經文」.

19) 『大學』，「傳5」.

라 그 무한한 현상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필연성을 뜻하는 리(理)는 그 자체가 영원불변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理)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의 속성이 명백함이다. 이러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공자의 배움이라는 사실을 『논어(論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환 지 자 불 혹  
子曰: 知者不惑.<sup>20)</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知]은 미혹되지 않는다.<sup>21)</sup>

자 환 온 고 이 지 신 가 이 원 사 의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sup>22)</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를 따져가며[溫故] 새로운 것을 알아내면 선생이 될 수 있다.”<sup>23)</sup>

몸의 무한한 변화를 현상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알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혹(惑)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알았다고 결정하는 순간 새로운 현상과 함께 새로운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즉시 이전의 해석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러나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知]은 미혹되지 않고”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는 것이 미혹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조중빈은 “이치를 따져가며 새로운 것을 알아내면”이라고 번역했다. 새로운 것은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고유한 영원의 이치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경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빈부(貧富)를 이해할 때, 방법의 기초는 우리 자신의 몸을 현상이 아닌 그 자체에 고유한 영원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논어(論語)』와 『대학(大學)』에 근거하여 공자의 학문, 더 나아가 유교문화의 학문을 이해할 때 그 핵심은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빈부(貧富)의 문제를 현상이 아닌 그 주체로서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접근하기로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이 몸 그 자체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20) 『論語』, 「子罕」 28장.

21)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225-226.

22) 『論語』, 「爲政」 11장.

23)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8.

## 2. 감정과학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빈부(貧富)를 이해하는 참다운 방법은 우리 자신의 몸을 무한한 현상이 아닌 몸의 영원한 사실로서 본성의 필연성에 대한 명백한 이해에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이 몸의 현상에 의존하는 해석이 아니라 몸 그 자체의 영원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몸의 본질을 우리가 욕망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욕망의 진실을 당연히 우리가 자명하게 이해하는 몸 그 자체의 영원한 진실로부터 연역된다.

위의 결론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성동권은 감정과학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을 몸이 하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감정은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자기 본성으로 삼아 오직 그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확인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품고 그것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sup>24)</sup>

성동권에 의하면 우리가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곧 몸이 느끼는 감정을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진실로 이해한다고 한다.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라고 했다.

성동권이 제시한 감정과학의 논리는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대한 정의를 몸으로 살아가며 놀이하는 몸의 진실로 이해하는 한에서, 몸 그 자체의 진실은 당연히 감정의 진실로 존재한다. 이 논리는 감정의 무한한 현상에 의존한 감정 해석이 아니다.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그 무한한 감정은 몸이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 그 자체의 진실이 분명한 이상, 몸이 느끼는 감정도 당연히 몸 그 자체의 진실 안에 있다.

이러한 감정과학의 논리는 사유의 자명함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감정을 감각적 현상으로 해석하면, 감정과학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몸에 고유한 영원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이 이

2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p. 14-15.

해에 근거하여 사유의 자명함을 따라서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영원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감정과학의 논리 기초를 공자의 『논어(論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자 완 학 이 불 사 즉 망 사 이 불 학 즉 태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sup>25)</sup>

공자가 말했습니다. “배운다며 생각하지[사랑하지] 않으면 답답하고[남는 게 없고], 생각한다며[사랑한다며]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sup>26)</sup>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思)이다. 공자가 강조하는 생각의 실상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학의 본질은 기하학적 사유의 자명한 인식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을 이해하며, 이 이해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참답게 인식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sup>27)</sup>

성동권에 의하면, 공자의 생각은 “기하학적 사유의 자명한 인식”이다. 이 사유는 몸의 현상에 의존하여 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의 진실을 이해하면, 당연히 감정에 대한 이해도 이 생각의 진실 안에 있다. 감정을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의 영원한 본성으로 감정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논리가 공자의 학문 방법에 그대로 적용된다.

감정과학의 논리가 곧 공자의 학문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동권은 감정과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감정의 겉모습 같은 현상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 및 그 결과에 의존하여 감정을 해석하는 ‘감정 해석’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한 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을 느낄 때 그 각각의 감정에 나아가 그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 감정의 순선무악(純善無惡)을 확인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입니다.<sup>28)</sup>

25) 『論語』, 「爲政」 15장.

26)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73.

27) 성동권, 『공자 유학의 사상적 기초로서 기하학적 사유』 (부크크 2020), p. 41.

28)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1.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몸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로부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감정과학은 감각적 현상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여 그에 대한 ‘추측’이나 ‘해석’을 늘어놓는 학문이 아니다. 현상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체’(自體)의 진실을 이해하는 ‘과학’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배울 때, 이 배움은 몸의 현상이 아니라 몸 그 자체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몸이 느끼는 욕망과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을 감각적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진실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확인에 근거하여 인간의 행복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몸으로 살아가는 경제 문제의 핵심 화두인 빈부(貧富)의 문제를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제3절 연구 범위

#### 1. 연구 범례

본 논문은 『논어(論語)』를 감정과학으로 증명한다. 감정과학으로서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경제 현상으로서 빈부(貧富)에 대한 감정과학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 이유로 본 논문은 『논어(論語)』를 광범위하게 인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비추어봤을 때, 본 논문이 인용하는 『논어(論語)』는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으로 이 문서의 진실을 밝힌 조중빈의 『안심논어』를 기초로 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이 인용하는 『논어(論語)』의 장과 절은 『안심논어』의 순서를 따른다. 주자가 정한 『논어(論語)』의 장과 절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 2. 연구 범위

본 논문의 ‘본론’은 제1장에서 정리한 ‘문제 제기’와 그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연구 방법’에 근거하여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이며,

5장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정리하는 결론이다. 이 결론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2장부터 4장에 걸치는 3개의 장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욕망의 진실을 밝힌 다음, 빈부(貧富)에 대한 감정과학의 이해가 무엇인지 정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감정과학의 경제학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이것으로 1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논문의 제2장은 『논어(論語)』를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으로 증명한다. 감정과학은 몸 그 자체의 진실로부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연역한다. 이 논리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무엇보다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유교문화가 이해하는 몸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으로 몸이 느끼는 욕망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때 방법의 핵심은 ‘지금 나 자신의 몸’에 나아가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을 밝히고 그것으로 욕망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논어(論語)』의 감정과학이다.

논문의 제3장은 감정과학으로서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다. 빈부(貧富)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두 개의 시선(視線)을 제시했다. 하나는 경제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몸의 진실 안에서 빈부(貧富)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를 정리한 다음, 빈부(貧富)를 바라보는 『논어(論語)』의 시선이 이 두 가지 가운데 후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 결과 가난을 뜻하는 빈(貧)과 풍요를 뜻하는 부(富)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의 제4장은 감정과학의 『논어(論語)』가 지금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경제적 행복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빈부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참다운 이해에서 나온다. 이 이해가 분명할 때, ‘나’는 ‘너’에 대해서도 참답게 이해한다. 그 결과 ‘나’와 ‘너’의 무한 교차가 절대적인 행복 안에 있다. 이 행복으로부터 경제 활동에서의 손해와 이익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주제를 영원무한 사랑의 회계학이라는 주제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감정과학의 공효(功效)로서 다 좋은 세상의 경제가 무엇인지 밝혔다.

이상, 본 논문은 제2장~제4장에 이르는 3개의 장에 근거하여 논문의 결론을 제5장에서 정리했다. 제1장은 ‘방중망’(龐衆望)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적 행복과 성공의 본질이 무엇이나는 문제를 제기했다. 본 논문은 『논어(論語)』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정리했다. 감각적 현상에 의존하는 수동적 해석으로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행복과 정의 그리고 평등을 누릴 수 없다. 오직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우리 스스로 자기 진실을 참답게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의 완전성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행복으로 경제를 이해할 때 다 좋은 세

상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

## 제2장 『논어(論語)』의 감정과학

본 장은 공자의 학문론을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감정과학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몸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함으로써 몸이 느끼는 욕망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서 성공할 때 본 논문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논어(論語)』를 감정과학으로 증명할 때, 그에 근거하여 『논어(論語)』의 빈부(貧富)를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의 행복 및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1절은 몸의 진실을 밝히며, 2절은 그에 이어서 욕망의 진실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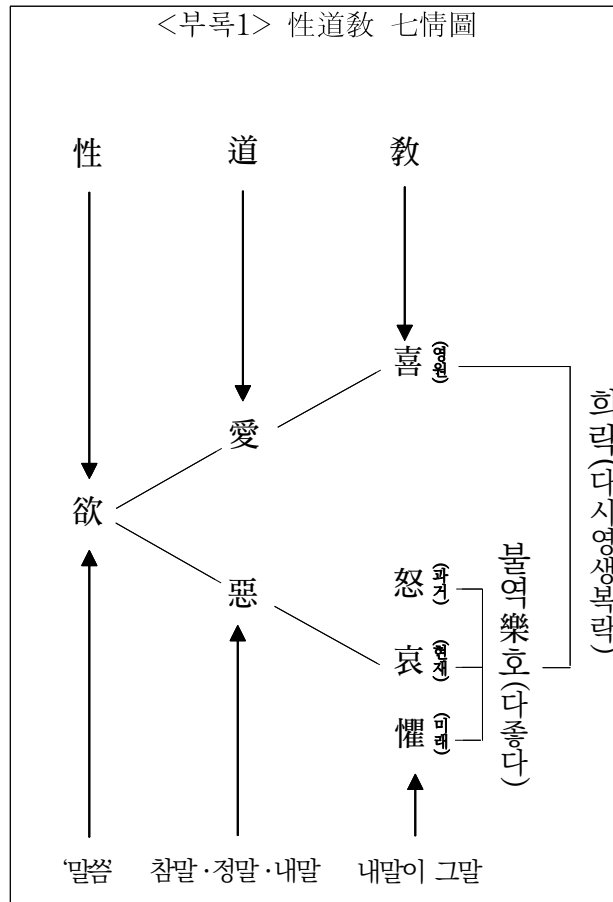
### 제1절 몸의 진실

#### 1. 엄마아빠나

##### 1) 감정과학의 논리: 몸-생김으로부터 몸-놀이

감정과학은 몸으로 살아가는 ‘몸-놀이’로서 감정(情)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추구하는 과학이다. 감정의 무한한 현상으로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무한한 현상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필연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확립한다. 그런데 무한한 감정은 ‘욕망’에서 나온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위한 방법의 기초가 욕망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빈은 『자명대학』에서 감정의 기초가 욕망에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확인했다.





<성도교 칠정도><sup>29)</sup>

인간의 무한한 감정을 칠정(七情)으로 요약하면, 그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욕망’ (欲)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의 진실은 비단 조중빈의 ‘칠정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 근대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윤리가 무엇인지 밝힌 스피노자(Spinoza, 1632~1677)도 『윤리학』에서 감정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정서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파악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sup>30)</sup>

스피노자에 의하면, 욕망은 “주어진 정서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파악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감정의 뿌리에 해당하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

29) 조중빈, 『자명대학』 (부크크 2020), p. 192.

30)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윤리학』, (서광사 2014), p. 219.

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은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더 나아가 몸-놀이의 감정은 실질적으로 욕망에 수렴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중빈과 스피노자의 이해를 따라서 몸-놀이로서 감정의 진실을 욕망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겠다.

우리의 논의를 ‘욕망’에 집중하면,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서 감정과학은 사실상 욕망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요약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욕망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무엇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감정과학의 ‘논리’이다. ‘몸-놀이’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본질로 존재하는 것을 ‘욕망’으로 확인하면, 욕망의 진실은 당연히 몸-놀이에 앞서는 ‘몸-생김’으로부터 연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몸-놀이의 진실은 몸-생김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앞(先)에 있고 무엇이 뒤(後)에 있는지 밝히는 선후(先後)의 논리를 따져가며 생각해 보면, 몸-생김은 몸-놀이에 앞선다. 왜냐하면 몸이 생겨난 다음, 생겨난 몸은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생겨나지 않으면 몸의 놀이를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감정과학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몸-생김: 지금 ‘나’의 몸은 생겨난 것이다.

② 몸-놀이: 생겨난 ‘나’의 몸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감정이라 하며, 감정의 뿌리는 욕망이다.

③ 몸-생김은 몸-놀이에 앞선다.

④ 따라서 몸-놀이의 본질로서 욕망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몸-생김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부터 연역된다.

위와 같이 정리하면, 몸-놀이의 진실을 몸-생김의 진실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감정과학의 논리이다. 이 논리로부터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과연 『논어(論語)』의 공자가 감정과학의 논리를 확인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자의 대답이 긍정이라면, 우리는

『논어(論語)』를 감정과학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 결과 『논어(論語)』의 감정과학으로 ‘빈부’(貧富)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유교문화가 추구하는 경제적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2) 효(孝): 내가 이해하는 내 몸의 필연성

공자의 학문이 지금 ‘나’의 몸을 배워서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혔다[자세한 것은 본 논문의 1장 제2절 「1. ‘나’의 몸」을 참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공자가 ‘나’의 몸을 배운다고 할 때 나의 몸에 나아가 생김의 진실을 확인하는지 여부이다. 공자가 배움의 본질을 ‘몸-생김’의 진실에 둔다면, 우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믿고 배울 수 있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子曰: 弟子, 入則孝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sup>31)</sup>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공자가 ‘학문’(學文) 이전에 ‘효제’(孝弟)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효’(孝)이다. 우선, 이것의 개념을 정의하기 이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효’(孝)라는 개념어 안에는 지금 ‘나’의 몸을 낳아주신 ‘엄마아빠’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명하게 이해하는 영원의 진실은 내 몸의 생김에 관한 엄마아빠의 존재는 영원의 필연성 자체라는 것이다.

엄마아빠가 없으면 지금 ‘나’의 몸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몸의 존재를 정립하는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는 명명백백한 진리이다. 엄마아빠 이외 그 어떤 것도 지금 ‘나’의 몸을 낳아주지 않는다. 엄마아빠의 존재가 내 몸 존재에 있어서 영원의 필연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논어(論語)』의 효(孝)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몸-생김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생각에 근거하여 공자의 효(孝)는 엄밀히 말해서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공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양 사상의 전통에서 사람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길가메시의 서사시』이다. 우리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몸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31) 『論語』, 「學而」 6장.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한다.

지금부터 길가메시의 행적을 알리노라. 그는 모든 것을 알았고, 세상 모든 나라를 알았던 왕이다. ... 3분의 2는 신이요, 3분의 1은 인간으로 만들었도다.<sup>32)</sup>

핵심은 “3분의 2는 신이요, 3분의 1은 인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길가메시의 생김에는 엄마와 아빠가 존재하며, 이 두 분의 존재를 떠나서는 생김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무의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김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생명’에 근거하여 자신의 놀이를 챙겨잡니다. 이로부터 지문 A의 ‘3분의 2는 신, 3분의 1은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2는 신’에서 신은 길가메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엄마(1/3)와 아빠(1/3)입니다. 이 두 분(2/3)이 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아빠의 생명이 길가메시의 생명에 관한 한 단 하나의 영원한 필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sup>33)</sup>

성동권에 의하면, 몸의 진실은 ‘엄마아빠의 생명’이다. “길가메시의 무의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김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생명’에 근거하여 자신의 놀이를 챙겨잡니다.”라고 정리했다.

이 정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명(自明)의 진실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 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자명’(自明)의 진실이다. 이 진실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몸-생김’에 관하여 공자와 길가메시의 생각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것으로 우리 모두는 몸-생김의 영원한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당연히 이 이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몸 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자명하게 깨닫는 진리이다.

위와 같은 이해는 『논어(論語)』 「학이」 편의 13장에 근거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유 자 환 신 근 어 의 언 가 복 야 공 근 어 예 원 치 욱 야 불 실 기 친 역 가 종 야  
有子曰：信近於義，言可復也。恭近於禮，遠恥辱也。不失其親，亦可宗也。<sup>34)</sup>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불실기친’(不失其親)이다. 물론 이 말은 공자의 제자

32) 샌다즈 저, 이현주 역, 『길가메시 서사시』(범우고전선 1999), pp. 11-13.

33) 성동권,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부크크 2021), p. 61.

34) 『論語』, 「學而」 13장.

인 유자(有子)가 남긴 가르침이다. 그러나 유자(有子)의 ‘자’(子)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이것은 공자(孔子)의 자(子)와 같은 의미에서 스승의 존칭을 뜻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유자를 공자의 충실한 제자로 이해하며,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공자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부모를 잊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은 자기 몸의 생김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하다. ‘역가종야’(亦可宗也)라고 했다. 여기에서 ‘종’(宗)은 매우 중요해서 절대적으로 빼 놓거나 빠질 수 없는 것을 뜻한다. 실질적으로 본질 내지는 본성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의 생김에 관하여 엄마아빠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엄마아빠를 몸-생김의 본질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효’(孝)는 엄밀히 말해서 몸-생김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확인하는 말이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자기 배꼽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엄마아빠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아는 것이 진짜 ‘효’(孝)입니다.<sup>35)</sup>

우리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생김의 진실을 생각해 보면, 엄마아빠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부터 지금 ‘나’의 몸의 생명에 관한 한 ‘엄마아빠’는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로서 영원의 생명이며 생명을 낳는 사랑 그 자체로서 영원의 사랑이다. 따라서 공자의 효(孝)는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진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이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이 진실에 근거하여 부연 설명을 하자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의무나 행동은 효(孝)의 본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 3) 리인(里仁): 아름다움 그 자체의 내 몸

지금 ‘나’의 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생겨났다. 이것이 몸-생김의 진실이다. 이 진실이 지금 ‘나’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라면, 지금 ‘나’의 몸은 그 어떤 현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자체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증명

---

3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94.

한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몸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본성으로 가지고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나’의 몸은 아름다움 그 자체의 몸이다.

이러한 몸의 진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 환 리 인 위 미 택 불 처 인 연 득 지.<sup>36)</sup>  
子曰: 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인’(里仁)에 대한 번역이다. 조중빈은 “온 동네(裏)가 자기 몸(仁)에 거하니”라고 번역했다.<sup>37)</sup>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인(仁)을 ‘자기 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조중빈의 번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① 공자에 의하면 학문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효(孝)이다. 이는 『논어(論語)』 1-6의 ‘학문’(學文)에 근거한다.
- ② 효는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생명과 사랑은 그 자체가 영원무한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 내 몸의 본질로 존재한다. 이 진실은 『논어(論語)』 1-13의 ‘역가종’(亦可宗)에 근거하여 학문의 본질을 정의한다. 그런데 공자의 학문은 자기 몸을 이해하는 위기(爲己) 또는 수기(修己)이며, 그 공효(功效)는 인(仁)이다. 따라서 자기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仁)이다.

위 두 가지 근거와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인(仁)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리인’(里仁)에 대한 조중빈의 번역은 지극히 당연하며, 동시에 감정과학에 충실한 것이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인용이 조금 길지만, 이는 본 논문의 논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논자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마을(裏)의 시작 또는 기원은 ‘엄마아빠와 나’입니다. 내 몸이 이미 있는 그대로 마을입니다. 내 몸이 영원무한의 사랑만으로 가득한 마을입니다. 내가

36) 『論語』, 「里仁」 1장.

37)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05.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는 애초부터 혼자 있지 않았습니니다. 혼자 있다가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배꼽이 그 증거입니다. 배꼽이 아니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는 나의 배꼽을 보는 나의 생각이 자기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엄마아빠의 영원무한한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해서 사랑 이외 다른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을입니다. 내 배꼽에 생각이 집중하면, 생각 스스로 내 몸이 마을의 원형이며 전형이고 기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셋이지만 셋이 아닌 하나, 동시에 하나이지만 하나가 아닌 셋.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라고 해서 셋이 사라지지 않고 셋이라고 해서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이 분명하지만, 그 셋이 본래 하나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을이고 지금 내 몸입니다.<sup>38)</sup>

조중빈과 같은 논리로 성동권도 리인(里仁)은 지금 ‘나’의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한다. 공자에 의하면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리인위미’(里仁爲美)라고 했다. 아름다움은 몸의 현상이 절대 아니다. 지금 내 몸의 진실이 ‘엄마아빠나’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 내지는 삼인공동체(三人共同體)이다. 이 진실로부터 지금 내 몸의 아름다움이 정의된다. 다시 강조하면, 지금 내 몸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아름다움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어(論語)』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자의 학문이 철두철미 감정과학의 논리를 따르는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이다. 공자에 의하면 학문의 진실은 몸-생김에 고유한 그 자체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자의 학문은 내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이 진실로 내 몸의 아름다움을 확인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석하면,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이 분명하다. 몸의 현상이 아닌 몸-생김을 그 자체의 진실로 몸을 타당하게 이해하는 학문이다.

## 2. 이미 행복한 ‘나’

### 1) 지천명(知天命): 영원의 생명

38) 성동권, 『유교(儒敎)의 반전평화 논리』 (부크크 2018), p. 69.

지금 내 몸에 고유한 생김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면, 그 즉시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 성스러운 존재이다.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존재의 행복은 없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 자신이 자기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본래부터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공자에게는 학문의 핵심이다.

자 환 오 십 유 오 이 지 우 학 삼 십 이 립 사 십 이 불 혹 오 십 이 지 천 명 육 십 이 이 순 칠 십 이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從心所欲不踰矩.<sup>39)</sup>

여기에서 핵심은 ‘지천명’(知天命)이다. ‘천명’(天命)에 대한 인식(知)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천명(知天命)의 시작은 ‘지우학’(志於學)이다. 즉, 배움에 뜻을 두었다면 반드시 천명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우학(志於學)의 학(學)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타당하게 이해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이러한 학문의 핵심 또는 본질은 바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몸-생김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무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으로부터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생겨났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의 몸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학문이라면, 앞에서 인용된 『논어(論語)』 「위정」 4장의 ‘지우학’(志於學)의 학(學)도 이 진실을 떠날 수 없다. 공자는 이 학문의 결과를 ‘지천명’(知天命)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지천명(知天命):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한다.

우리 자신이 자기 몸의 생명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영원무한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영원무한은 절대적으로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으며, 사실상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해되는 단 하나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영원무한은 영원무한 그 자체에

39) 『論語』, 「爲政」 4장.



의해서 인식될 뿐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생명의 진실로 이해한다. 동시에 이 이해로부터 자기는 본래부터 천(天)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증명한다.

지천명(知天命)에 대한 본 논문의 이해를 성동권은 감정과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知天命(지천명)”은 天(神)이 자기 몸을 신성(神性)의 영원성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자기이해’의 능동성으로 자기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이해는 사실상 신의 정신이 신 자신의 몸을 ‘자기이해’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해가 분명할 때 자기 몸을 배워서 자기 몸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실현하는 삶입니다. 天(神)이 따로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나’의 몸에 나아가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 하나’가 ‘하나 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sup>40)</sup>

성동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자기이해’의 능동성으로 자기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이해는 사실상 신의 정신이 신 자신의 몸을 ‘자기이해’로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영원무한은 오직 영원무한으로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참답게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백하게 이해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실체 또는 천(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진리의 필연성 안에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본 논문의 주장은 필연성 그 자체이다. 공자의 학문은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이 이해로부터 우리 자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우리의 진실은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천(天)이다. 지금 ‘나’는 나의 몸 그 자체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한다. 이미 행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이다. 이 진실은 몸의 현상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 2) 천지역수(天之曆數): 내 몸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

몸-생김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각자 자기의 몸에서 이해하는 한에서 우리 자신은 본래부터 영원무한 그 자체인 천(天)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공자의 ‘지천명’(知天命)

40)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112.

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영원무한의 천(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듣기에 따라서 매우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진실을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증명한다고 하면, 더욱더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 말은 바로 앞의 결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몸의 현상에 근거하지 않는다.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에서 나온다.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에 대한 본 논문의 이해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논어(論語)』 「요왈(堯曰)」 1장에 근거하여 확실하다.

요 완 자 이 순 천 지 력 수 제 이 공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在爾躬.<sup>41)</sup>

공자에게 ‘요’(堯)는 인간의 진실을 뜻한다. 어떤 신화적 인물에 국한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간 본래의 영원한 진실이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문은 ‘남’(堯)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을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기 때문이다. 자기 배움의 결과가 자기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위기지학’이 아니다. 그러나 공자의 학문을 철두철미 자기 몸을 배워서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요(堯)는 신화 내지는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진실, 즉 우리 자신의 진실이다.

『논어(論語)』의 기록에 의하면, ‘요(堯) 임금이 말했다.’고 한다. 바로 앞의 문단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이것을 ‘우리 자신의 진실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 등장하는 순(舜)은 무엇일까? 당연히 요(堯)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요순(堯舜)을 ‘우리 자신(堯)의 진실을 우리 자신(舜)에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해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 논문은 몸-생김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이것으로 우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이해한다. 요순(堯舜)에 대한 이해는 이에 근거한다.

요순(堯舜)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우리 자신의 진실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준다고 할 때,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천 지 력 수 제 이 공  
원문: 天之曆數在爾躬

천 지 력 수 제 이 공  
변경: 天(之曆數)在爾躬

원문에 대한 번역과 이해에 앞서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 변경한 것을 먼저 보자.

41) 『論語』, 「堯曰」 1장.

결국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로서 ‘천’(天)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躬)에 있다는 뜻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진실은 우리 자신에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있다.’라고 말한다. 동시에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에 대한 대답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수’(曆數)이다. 그러나 이 주제는 지금까지 전개된 우리의 논의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을 두고 생각해 보면, 엄마아빠의 존재가 명백하다. 다음으로, 엄마아빠의 존재로부터 엄마아빠를 낳아주신 ‘엄마아빠의 엄마아빠’의 존재가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엄마아빠의 존재를 영원무한으로 확인하게 된다. ‘엄마 한분’과 ‘아빠 한분’의 생명과 사랑을 영원무한으로 존재한다. 이 영원무한의 진실이 ‘역수’(曆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역수’(曆數)가 ‘천지역수’(天之曆數)이기 때문이다. 즉, 천(天)의 역수(曆數)이다. 천(天)은 이미 우리가 논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생명의 진실이 천(天)이다. 그런데 이 진실은 몸-생김에 고유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은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을 품고 있다. 이것이 지금 내 몸의 생김으로 존재하는 천(天)의 진실이라면, 당연히 ‘천지역수’의 역수(曆數)는 내 몸-생김에 고유한 진실로서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이다.

이 진실을 조중빈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요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 순(舜)아, 영원무한한 하늘의 내력이 네 몸에 있으니 ….”<sup>42)</sup>

천재이궁(天在爾躬)에 대한 조중빈의 번역은 “영원무한한 하늘의 내력이 네 몸에 있으니”이다. 영원무한의 하늘(天)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을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체로서 ‘천’(天)이다. 이 사실을 유영관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천재이궁(天在爾躬)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 몸이 천자(天子)의 몸이라는 증명이다.<sup>43)</sup>

유영관은 우리 자신의 진실을 효(孝)에 근거하여 다시 확인한다. 우리 몸의 본질

42)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429.

43) 유영관,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20), p. 156.

이 본래부터 천(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을 이해하면, 몸-생김의 진실은 천자(天子)이다. 천(天)과 천자(天子)는 본질에서 있어서 그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지만, 생김에 관한 한 천(天)은 ‘낳는 것’이며, 천자(天子)는 ‘낳아진 것’의 구분만이 있을 뿐이다. 이 둘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본래 하나이다.

이상, 본 논문의 1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몸-놀이의 감정에 앞서는 몸-생김의 진실을 『논어(論語)』에 근거하여 탐구했다. 그 결과 공자의 학문은 몸-생김을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몸-생김의 본성은 엄마아빠의 존재로 이해해야 하며, 이 이해로부터 몸-생김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확인으로부터 우리의 진실은 본래부터 천(天) 안에서 천(天)으로 존재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천자(天子)이다.

## 제2절 몸이 느끼는 욕망의 진실

### 1. 생김으로 놀이하는 몸

#### 1) 『중용(中庸)』의 솔성(率性)

감정과학의 논리는 ‘몸-생김으로부터 몸-놀이’이다. 우리가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한에서 몸-놀이의 본성은 자기에게 앞서는 몸-생김의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갖는다. 이 논리가 감정과학의 논리인 이유는 감정에 대한 기본 정의가 신체의 변용, 즉 ‘몸-놀이’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는 ‘몸-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근거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윤리학』이다.

|| 3부, 정의 3. ||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sup>44)</sup>

44)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7), p. 153.

감정은 몸-놀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이해는 감정의 원인을 감정 밖 외부원인으로 돌리는 데에 있지 않다.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몸-놀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몸-생김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의 절에서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했다. 그것은 바로 천명(天命)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가 몸-생김의 진실을 천명(天命)으로 정의한다면, 공자를 비롯해서 공자를 계승한 유교문화의 문서들은 생김의 진실인 천명(天命)으로 몸-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이 논문의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중용(中庸)』의 1장을 읽어 보면 아주 놀라운, 그러나 사실은 매우 당연한 명제를 발견하게 된다.

천명지위성, 率性之謂道.<sup>45)</sup>

『중용(中庸)』 1장에 등장하는 천명(天命)은 『논어(論語)』의 그것과 절대적으로 다를 수가 없다. 공자의 천명(天命)은 배움의 결과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천명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학문을 계승하는 것이 『중용(中庸)』이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천명(天命)은 당연히 공자의 천명과 본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바로 앞의 절에서 본 논문은 공자의 천명(天命)을 우리 몸에 고유한 생김의 본성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의 실상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점을 분명히 하면, 『중용(中庸)』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은 공자가 밝힌 우리 몸의 생김에 고유한 진실로 이해해야 한다. 이 이해를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혀준다.

하늘[天]이 낳은 영원한 생명[命]인 내 몸<sup>46)</sup>

조중빈에 의하면, 『중용(中庸)』의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지금 내 몸의 진실이다. 본 논문은 이 진실을 감정과학의 논리에서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이것을 본 논문은 『중용(中庸)』의 ‘천명지성’(天命之性)의 성(性)으로 정의한다.

조중빈도 본 논문의 정의와 동일한 맥락으로 천명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5) 『중庸』 1장.

46) 조중빈, 『자동중용』 (부크크 2018), p. 27.

이 『중용(中庸)』 수장首章은 하늘이 낳은 영원한 생명, 즉 내 몸의 느낌을 따르는 감정의 흐름을 성性, 도道, 교敎 세 글자로 요약하고 있다[<부록2>성도교 칠정도]. 성性은 하늘[天]이 낳은[命] 영원한 생명[本然之性 = 大體(『맹자』 「고자상」 15)]인 내 몸[身 = 己]을 말한다. 길이요 진리인 생명[『요한복음』 14:6], 그 생명이다. 그 몸[天命性]이 영원히[하늘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성이다[生之性(살고 싶은 마음) = 愛之理(사랑하고 싶은 마음), 『성학십도』 「제7인설도」]. 성性자를 ‘生 + ㅅ’으로 파자하고 그 뜻을 새기니 내 몸[性]의 살고 싶은[生] 마음[ㅅ]이 드러난다.<sup>47)</sup>

조중빈은 성(性)을 “성性은 하늘[天]이 낳은[命] 영원한 생명”으로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몸-생김의 진실이다.

『중용(中庸)』은 공자의 천명(天命)을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밝힌 다음, 바로 이어서 ‘솔성지도’(率性之道)로 전개한다. 솔성(率性)의 성(性)은 천명의 성이며, 실질적으로 몸-생김의 본성이다. 이 본성을 따른다는 것이 솔성(率性)이므로, 이것은 사실상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는 몸-놀이이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논점이다. 다음으로 솔성(率性)의 성(性)은 천명의 성이기 때문에 천명의 성은 당연히 솔성에 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논점이다.

위 두 가지 논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몸-놀이의 진실은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기 때문에 천명지성은 솔성지도(率性之道)의 도(道)에 존재한다. 즉,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몸-놀이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이 결론에 근거하여 공자가 정초한 유교문화의 정체성은 감정과학으로 증명된다.

## 2) 『논어(論語)』의 궁지체(躬之逮)

『중용(中庸)』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솔성지도(率性之道)는 감정과학의 논리인 몸-생김으로부터 몸-놀이의 필연성을 확인한다.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논어(論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중용(中庸)』이 확인하는 감정과학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앞의 절에서 우리는 ‘천재이궁’(天在爾躬)에 대해서 정리했다. 궁(躬)은 지금 ‘나’의 몸이며, 그것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천

47) 조중빈, 『자동중용』 (부크크 2018), p. 28.

(天)의 몸이 바로 지금 ‘나’의 몸이다.

이 정리에 근거하여 『논어(論語)』의 다음 구절을 읽어 보자.

子曰: 古者, 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sup>48)</sup>

언(言) 우리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몸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제 돌아가신 분과 달리 오늘을 자기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出)과 하지 않는 것(不出)은 실질적으로 몸-놀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몸-놀이를 결정하는 것은 몸-놀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궁(躬)이다. 여기에서 궁(躬)은 『논어(論語)』 20-1의 ‘천재이궁’(天在爾躬)의 ‘궁’과 다를 수가 없다. 이점을 분명히 하고 위의 인용을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다.

원문: 躬之不逮

변형: 躬之逮

궁(躬)이 도달했다는 것이 ‘궁지체’(躬之逮)이다. 반면, 궁(躬)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궁지불체’(躬之不逮)이다. 그런데 체(逮)와 불체(不逮)는 몸-놀이에 직결된다.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

원문: 躬之不逮 -> 언불출(言不出)

변형: 躬之逮 -> 언출(言出)

결국 몸-놀이로서 언(言)을 결정하는 것은 궁(躬)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궁(躬)은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몸-놀이에 오면 말을 하고, 반대로 몸-놀이에 오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몸-생김의 본성을 『중용(中庸)』은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확인하며, 이 진실 그대로 몸-놀이의 본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술성지도(率性之道)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교가 성립한다.

48) 『論語』, 「里仁」 21장.

공: 천명지성(天命之性) -> 공 지 체: 솔성지도(率性之道) -> 언출(言出)

위와 같은 감정과학의 논리를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몸에 아직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躬之不逮] 말하기가 ‘거시기’해서 그런 것이다.”<sup>49)</sup>

“몸에 아직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라는 것은 몸-놀이를 분명히 한다. 몸-놀이는 공(躬)의 진실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중용(中庸)』에 내재된 감정과학의 논리는 『논어(論語)』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몸-놀이의 진실은 절대적으로 현상에 의존하는 해석일 수 없다. 몸-놀이는 본성상 자기에게 앞서는 몸-생김의 본성을 자기 본성으로 갖기 때문에, 우리가 몸-생김의 본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한에서 몸-생김의 진실은 몸-놀이의 진실로 존재한다. 몸에 고유한 영원의 진실을 『논어(論語)』와 『중용(中庸)』은 각각 천재이공(天在爾躬)과 천명솔성(天命率性)으로 확인하고 있다.

### 3) 『중용(中庸)』의 중화(中和)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기 때문에 몸-생김의 본성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몸-놀이의 진실로 존재한다는 감정과학의 논리는 『중용(中庸)』에 의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용(中庸)』은 감정과학의 논리를 천명지성(天命之性)과 솔성지도(率性之道)로 확인한 다음, 이 논리를 감정의 진실로 드러낸다. 『중용(中庸)』을 대표하는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이 그것이다.

희노애락지미발 위지중 발이개중절 위지화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sup>50)</sup>

여기에서 『중용(中庸)』의 ‘희노애락’은 말 그대로 ‘감정’이다. 본 논문은[2장/ 1절 / 1. ‘엄마아빠나’ 참조.] 이 감정을 ‘몸-놀이’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금 전

49)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21.

50) 『中庸』 1장.



에 정리했듯이, 『중용(中庸)』에서 몸-생김과 몸-놀이는 각각 ‘천명지성’(天命之性)과 ‘솔성지도’(率性之道)이다. 이상의 정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할 수 있다.

회 노 애 락  
喜怒哀樂 = 솔성지도(率性之道)

몸-놀이의 감정에 고유한 진실을 지시하는 솔성지도에서 핵심은 성(性)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천명지성(天命之性)의 성(性)이다. 즉, 몸-생김의 본성이 몸-놀이의 감정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중용(中庸)』의 ‘회노애락’을 우리가 감정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회노애락은 솔성지도(率性之道)의 감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자기 안에 천명지성(天命之性)을 본래부터 자기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점이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위의 논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중용(中庸)』의 중(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회 노 애 락 지 미 발 위 지 중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위의 인용에서 핵심은 두 가지이다.

① 미발(未發) = 중(中)

② 미발(未發)은 회노애락(喜怒哀樂)의 미발(未發)이다. 따라서 미발(未發)은 ‘회노애락’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위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이성의 필연성 안에서 진리의 필연성이다.

회로애락지미발(喜怒哀樂之未發) = 회노애락‘의’ 미발 = 중(中)

그런데 회노애락은 몸-놀이의 감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도식을 보다 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몸-놀이‘의’ 미발 = 감정‘의’ 미발 = 중(中)

다음으로 감정에는 ‘감정의 미발(未發)’로서 ‘중’(中)만 존재하지 않는다. 감정의 발(發)도 있다. 이 발(發)은 중절(中節)이다.

발 이 개 중 절 위 지 화  
發而皆中節，謂之和.

즉, 중절(中節)의 ‘감정’(情)이다. 중절(中節)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인 것이다. 『중용(中庸)』은 이 감정을 ‘화’(和)라고 정의한다. 이상, 이 논의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감정의 발(發) = 중절(中節) = 화(和)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정리를 요약할 수 있다. 참고로 감정의 발(發)을 종래의 관습을 따라서 ‘미발’(未發)과 그에 대응하는 ‘이발’(已發)로 바꾸어 부르겠다.

① 감정의 미발(未發) = 중(中)

② 감정의 이발(已發) = 중절(中節) = 화(和)

위의 정리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중용(中庸)』은 감정을 미발(未發)과 이발(已發)로 나누어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용(中庸)』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점을 다시 강조하고, 다음의 논의로 들어가겠다. 『중용(中庸)』은 중화(中和)를 논한 다음, 다음과 같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중 야 자 천 하 지 대 본 야 화 야 자 천 하 지 달 도 야  
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sup>51)</sup>

위의 명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중 야 자 천 하 지 대 본 야  
中也者，天下之大本也。 → 변경: 중(中) = 본(本)

51) 『中庸』 1장.

화야자 천하지달도야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 변경: 화(和) = 도(道)

위의 변경을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정리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

① 감정의 미발(未發) = 중(中) = 감정의 본(本)

② 감정의 이발(已發) = 중절(中節) = 화(和) = 감정의 도(道)

②에 있는 감정의 도(道)는 사실상 솔성지도(率性之道)이다. 감정은 그 현상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드러나지만, 그러한 감정의 무한성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을 따른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①에 있는 ‘중(中) = 본(本)’이다. 감정에는 그 한 가운데(中) 자기 존재에 고유한 본성(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때의 본성은 당연히 천명지성(天命之性)이다.

위와 같이 이해하면, 감정의 미발(未發)은 감정의 이발(已發)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이며, 이것은 몸-생김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천명지성(天命之性)이다.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 몸-놀이의 본성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사실상 감정의 본성으로 존재한다는 감정과학의 논리를 확인한다. 이 논리로부터 감정의 이발(已發)이 중절(中節)의 감정이라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진리이다. 몸-놀이로서 감정의 본성을 미발(未發)로 이해하는 한에서 모든 감정의 이발(已發)은 당연히 미발(未發)을 자기 본성으로 갖는다. 이 이유로 이발(已發)의 감정은 중절(中節)이며 화(和)이다.

본 논문이 이해하는 『중용(中庸)』의 ‘중화’(中和)를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희노애락’은 말 그대로 감정입니다. 『중용(中庸)』은 감정에 대해서 ‘미발’(未發)과 ‘발’(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누어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면 발(發)한 것만이 감정의 전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용(中庸)』은 발(發)한 것, 즉 얼굴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희노애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감정만이 감정의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에는 ‘발’한 것과 별도로 ‘미발’(未發)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감정의 미발이 감정의 진짜 얼굴, 즉 ‘실체’라고 합니다. 감정의 미발을 중(中)이라고 하며, 이것을 ‘천하지대본’, 즉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sup>52)</sup>

52) 성동권, 『유교(儒敎)의 반전평화 논리』 (부크크 2018), p. 127.

성동권은 “『중용(中庸)』은 감정에 대해서 ‘미발’(未發)과 ‘발’(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한다. 이후 여기에 순서의 논리를 적용한다. 감정의 미발은 감정의 이발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어(論語)』와 『중용(中庸)』에서 본 논문이 확인한 것은 유교문화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두 문서가 철두철미 감정과학의 논리를 기초로 하는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이다. 본 장의 1절은 몸-생김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이 두 문서가 몸-생김의 진실로부터 몸-놀이를 연역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종적으로 몸-놀이의 진실이 실질적으로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감정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밝혔다. 이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몸-생김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듯, 몸-놀이의 감정에 고유한 진실 또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 2. 이미 행복한 ‘욕망’

### 1) 『논어(論語)』의 종심소욕(從心所欲)

감정과학에 의하면, 지금 ‘나’ 자신의 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생겨났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몸이다. 이러한 몸-생김의 진실이 몸-놀이의 진실이라면, 우리가 몸-놀이의 본질을 욕망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욕망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몸-놀이의 본질로서 욕망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면, 몸으로 살아가는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오직 욕망의 진실 안에서 욕망의 진실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정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논점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①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면 욕망을 믿고 산다.

② 욕망의 속성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욕망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진실을 긍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진실을 부정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즉시 욕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긍정함으

로써 오직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추구하도록 영원성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욕망의 진실이며 동시에 욕망의 이성이다.

③ 욕망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결핍에 빠져 있지 않다. 욕망은 영원성 그 자체로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존재한다.

위와 같이 욕망의 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감정과학은 욕망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욕망의 진실을 이해해서 욕망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방법이다.

이미 완전한 행복 속에 존재하는 욕망은 자신의 완전한 행복을 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행복 추구가 욕망의 필연성이며, 욕망의 이성이다. 왜냐하면 이 결정을 어기는 욕망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정을 어기는 욕망이 있다면, 그 즉시 욕망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에게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이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진리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참고로 이 지점에서 본 논문이 전개하는 욕망의 진실은 소위 욕망을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현상에 근거하여 욕망을 해석한 결과가 절대 아님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본 논문이 주장하는 욕망의 진실은 그에 앞서는 것으로서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연역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 같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더 나아가 욕망을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나 행동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욕망이 과연 욕망 그 자체에 대한 참다운 인식 안에 있는 욕망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인식하면, 그 즉시 감정과학의 논리를 따라서 몸-생김의 본성은 몸-놀이의 본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한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본래부터 몸-생김의 진실이 몸-놀이의 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몸의 생김과 놀이를 일관(一貫)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논문이 밝힌 바와 같이 몸-놀이의 본질은 욕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욕망을 믿고 배우며 욕망의 진실로 살아야 한다.

위의 결론을 『논어(論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왈 오십유오이 지우학 삼십이립 사십이불혹 오십이지천명 육십이이순 칠십이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쉬운 이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위의 인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다.

학 → 知天命 → 從心所欲不踰矩

여기에서 학(學)은 당연히 자기 몸을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다음으로 지천명(知天命)은 위기지학의 핵심이 자기 몸에 나아가 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배우는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끝으로 종심소욕(從心所欲)은 위기지학의 궁극적인 효과가 몸-생김의 본성으로부터 몸-놀이의 본성을 연역하고, 그것을 근거로 몸-놀이의 본질인 욕망의 진실을 믿고 따르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몸-생김의 진실인 천명(天命)의 성(性)을 이해하면, 몸-놀이는 이 성(性)을 따르는 술성(率性)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진실은 천명의 성(性)을 자기의 본성으로 갖는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진실을 이해하면, 마음은 절대적으로 욕망을 믿고 배우며 욕망만을 따르도록 결정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이 방법만이 욕망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마음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마음의 욕망’이다.

우리가 마음과 욕망의 문제를 이와 같이 이해하면 종심소욕(從心所欲)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욕망이 욕망하는 바를 마음이 욕망하며 따른다.’이다. 문장의 주어는 욕망 그 자체의 진실이지 절대적으로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욕망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욕망의 진실에 어두운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교문화의 진실인 감정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

조중빈 또한 본 논문과 같은 방식으로 번역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5살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후 나이 30에 논리가 서고, 40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남의 욕망에 따라 흔들리지 않자 50에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 60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화가 나지 않으니 70에 중된 마음이 원하는 바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sup>54)</sup>

조중빈은 ‘종심소욕’(從心所欲)의 ‘종심’(從心)을 “중된 마음”이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에서 중된 마음은 몸-생김의 진실인 천명지성(天命之性)을 이해함으로써 그

53) 『論語』, 「爲政」 4장.

54)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3.

진실을 어기지 않는 마음의 자연스러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진실을 이해하는 한에서 천명지성은 솔성지도(率性之道)의 욕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 된 마음은 당연히 욕망에 중이 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논어(論語)』를 통해서 확인하는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이 명백하다. 앞에서 정리한 ‘학’(學) → ‘지천명’(知天命) →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逾矩)의 논리구조는 감정과학의 논리를 간단하게 보여준다. 몸-생김의 진실이 분명하면, 그 결과는 항상 몸-놀이의 진실로 직결된다. 그 결과 욕망의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욕망의 진실 안에서 욕망의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행복은 그 어떤 법도를 어기지 않는 ‘불유구’(不踰矩)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

## 2) 『논어(論語)』의 욕인(欲仁)

욕망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면, 욕망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욕망은 오직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생명과 사랑만을 추구한다. 한편, 욕망의 진실임과 동시에 욕망이 추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본 논문은 ‘리인’(里仁)으로 정의했다[2장 제1절 ‘3’ 참조]. 따라서 욕망이 인(仁)을 행복으로 추구한다는 말이 성립한다.

『논어(論語)』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완 인 원 호 제 아 욕 인 사 인 지 의  
子曰: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sup>55)</sup>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이다.

① 我欲仁<sup>아 욕 인</sup>

② 斯仁至矣.<sup>사 인 지 의</sup>

첫 번째 논점인 ‘욕인’(欲仁)에 근거하면, 욕망은 인(仁)을 자기 행복으로 추구한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공자의 학문이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다

55) 『論語』, 「述而」 29장.

시 확인할 수 있다. 욕망에 종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심소욕(從心所欲)이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욕망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생명과 사랑만을 긍정하는 인(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논점에서 욕망의 진실은 명백하게 드러난다. 인(仁)을 욕망하면 그 즉시 인(仁)을 얻는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욕망이 구하는 인(仁)은 절대적으로 욕망에게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인(仁)을 욕망할 때 욕망 자신에게는 인(仁)이 없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의지력 같은 인위적인 노력을 들여서 인(仁)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인지의’(斯仁至矣)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仁)을 욕망하면 그 즉시 인(仁)이 이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 욕망이 인(仁)을 욕망할 때, 그것은 이미 욕망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진실이다. 즉, 인(仁)에 관한 한 욕망은 절대적으로 결핍에 놓이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이해이다.

다른 하나는 인(仁)은 욕망 자신의 진실이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몸에 고유한 진실이라는 사실이다. 세상 모든 몸의 본성은 존재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 생명의 몸은 오직 생명의 몸이 낳아주기 때문에 결국 생명 그 자체의 몸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낳아진 생명의 몸에 본성으로 존재한다. 이 진실에 근거하여 보면 욕인(欲仁)의 인(仁)은 목적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사실이다. 본래 있는 사실을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하면 그 즉시 사실을 확인한다.

위 두 가지 논점을 분석하면, 욕인(欲仁)은 절대적으로 목적론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인(仁)을 욕망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결핍에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인(仁)을 욕망하면, 그 즉시 욕인(欲仁)은 성공이다. 이 진실을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仁, 느낌]이 멀기는 뭐가 멀다고 하는가? 내가 사랑[仁, 느낌] 하고자 하면 그 사랑[仁, 느낌]이 온다.”<sup>56)</sup>

인(仁)을 구하는 욕망은 반드시 인(仁)을 얻는다는 것은 욕망의 진실이 이미 인(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진실은 세상 모든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본래부터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56)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90.



욕<sup>욕</sup>인<sup>인</sup>이<sup>이</sup>득<sup>득</sup>인<sup>인</sup>, 우<sup>우</sup>연<sup>연</sup>탐<sup>탐</sup>.<sup>57)</sup>

욕인(欲仁)이면, 그 즉시 득인(得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외 다른 것을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연탐’(又焉貪)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이외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몸의 진실이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몸의 진실이며, 동시에 그 모든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이다. 따라서 인(仁)을 구하면 당연히 인(仁)을 얻는 데에 성공한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며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仁)을 욕망함으로써 그 즉시 인(仁)을 얻는다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을 욕망하는 욕망은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 진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구<sup>구</sup>인<sup>인</sup>이<sup>이</sup>득<sup>득</sup>인<sup>인</sup>, 우<sup>우</sup>하<sup>하</sup>원<sup>원</sup>.<sup>58)</sup>

『논어(論語)』의 20-2는 인(仁) 이외 다른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인(仁)을 구하는 욕망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원망할 일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인’(仁)을 구(求)했는데, 알고 보니 ‘인’(仁)이 본래부터 자기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본래부터 영원무한으로 존재하는 ‘인’(仁)이 지금 내 몸을 낳아주며 동시에 지금 내 몸 안에서 내 몸에 생명을 영원무한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은 최상의 신적 완전성 안에서 신적 행복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기 몸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마음은 영원무한의 생명 안에서 자기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sup>59)</sup>

그러므로 욕망의 진실을 몸-놀이의 본성으로 이해하고, 이 본성을 놀이에 앞서는 생김 그 자체의 진실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으로 이해하면, 욕망은 영원으로부터

57) 『論語』, 「堯曰」 2장.

58) 『論語』, 「述而」 14장.

5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78.

영원에 이르는 영원성으로 최고의 완전성과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완전한 행복 속에서 자기 본질로 존재하는 생명과 사랑만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것이 욕망의 진실이다. 몸-생김의 진실이 완전한 행복 이므로 몸-놀이의 진실 또한 완전한 행복이다.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한 행복 속에 있다.

### 3) 『논어(論語)』의 기욕(己欲)

욕망의 진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철두철미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진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부인자 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sup>60)</sup>

여기에서 ‘인자’(仁者)를 지금의 ‘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몸의 진실이 인(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仁)의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 ‘나’ 자신이 곧 인자(仁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자’를 이해하면 나머지 두 개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① 기욕립이립인: 자기(己)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위에 서 있고 싶어 하므로 당연히 그 진리 위에 서는 사람(人)이다.

② 기욕달이달인: 자기(己)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고 싶어 하므로 당연히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人)이다.

기(己)와 인(人)을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문장의 시작이 인자(仁者)이기 때문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자(仁者)이다. 다음으로 인자(仁者)의 욕망은 ‘욕인이득인’(欲仁而得仁)이며 ‘구인이득인’(求仁而得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기 욕망의 진실을 알아서 그 진실대로 살기를 욕망하는 사람이다. 이 진실에 근거하여 욕립(欲立)과 욕달(欲達)을 이해해야 한다.

60) 『논어(論語)』, 「옹야(雍也)」 28장.

이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본 논문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번역하는 것 이외 다른 번역은 상상할 수 없다. 본 논문의 번역을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대저 어진 사람이란 서고 싶다면 서고, 하고 싶다면 하는 사람이다.<sup>61)</sup>

조중빈도 기(己)와 인(人)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서고 싶다면 서고, 하고 싶다면 하는 사람”으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한 방법은 욕망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욕망의 진실은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으로 행복 속에 있다. 몸의 진실이 완전한 행복이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욕망의 진실 또한 완전한 행복이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만을 행복으로 추구한다. 이것 이외 다른 것은 추구하지 않으며, 이 행복은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실패나 그에 따른 원망은 없다. 영원의 행복을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이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살아가는 욕망의 진실이다.

---

61)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68.

### 제3장 『논어(論語)』 감정과학의 빈부(貧富)

본 논문의 제2장은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했다. 핵심은 몸-생김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몸-놀이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 진실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관하여 본 논문의 답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행복이 몸-생김과 몸-놀이를 일관하는 단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향한 배움이 공자가 가르친 유교의 학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논어(論語)』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빈부(貧富)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겠다.

#### 제1절 빈이락(貧而樂)

##### 1. ‘빈’(貧)으로 존재하는 몸

###### 1) 빈(貧)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빈(貧)은 말 그대로 ‘가난’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경제적 현상으로 바라본다. 이런 관점은 『논어(論語)』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자왈 賢哉 회야 일단사 일표음 재루향 인불감기우 회야 불개기락 현재 회야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  
也.<sup>62)</sup>

‘일단사’(一單食)은 밥 한 끼를 뜻한다. ‘일표음’(一瓢飲)은 고급스러운 국그릇에 담긴 국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국그릇이 아니라 표주박으로 만든 그릇에 밥을 맨 물에 말아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하루 한 끼 먹으며, 그것도 맨 물에 밥 한 덩어리를 말아서 먹는 사람은 어디에 살까? 이런 사람은 대체로 ‘루향’(陋巷)에 산다. 소위 판자촌 또는 달동네가 그것이다. 재루향(在陋巷)은 그런 동네에 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단사’(一單食), ‘일표음’(一瓢飲), 그리고 ‘재루향’(在陋巷)은 가난의 ‘빈’(貧)을 현상

62) 『論語』, 「雍也」 9장.

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가난함(貧)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슬퍼하며 근심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가난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가난함’(貧)을 찬양하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유함’(富)을 나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가난에 딸려오는 수많은 제약들은 엄밀히 말해서 욕망의 자유를 한계 짓기 때문에 욕망의 진실은 절대적으로 가난을 자기 행복으로 욕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욕망의 진실을 앞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 단 사 일 표 음 제 무 향 인 불 감 기 우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불감기우’(不堪其憂)란, 사람이 경제 현상으로서 ‘가난’(貧)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걱정하며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가난을 겪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근심과 걱정 같은 감정을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 공자는 이 감정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빈 여 천 시 인 지 소 오 악  
貧與賤, 是人之所惡也.<sup>63)</sup>

사람은 가난(貧)과 천함(賤)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제 현상 또는 몸-놀이의 현상으로서 빈천(貧賤)을 자기 행복으로 추구하는 욕망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자는 경제현상으로서 ‘가난’(貧)을 불선(不善)이나 악(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 가난으로 인해 겪는 두려움과 슬픔 같은 감정을 긍정한다는 것이 곧 가난 자체를 없애야 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 야 불 개 기 락  
回也, 不改其樂.<sup>64)</sup>

여기에서 중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63) 『論語』, 「里仁」 5장.

64) 『論語』, 「雍也」 9장.

① 회(回= 顔淵)는 일단사(一單食), 일표음(一瓢飲), 그리고 재루항(在陋巷)을 즐기지 않았다. 경제 현상으로서 가난을 묘사하는 이 세 가지는 안연(顔淵)의 즐거움이 아니다.

② ‘불개기락’(不改其樂)은 회(回)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불감기우’(不堪其憂)와 함께 읽는 것이다. 가난으로 인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안연에게도 공통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안연도 가난한 처지에서 겪게 되는 슬픔과 걱정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연은 그런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이해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회’(回=顔淵)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는 것이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공자가 안연(顔淵)의 즐거움을 현명하다고 칭송했기 때문이다. 안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공자가 제시한 유교문화의 학문을 이해하는 핵심이며 동시에 감정과학의 핵심이다. 이 문제를 밝힐 때 본 논문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제시한 인용에 대한 조중빈의 번역을 보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회는 참 현명하구나! 한 덩이 밥과 한 쪽박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골목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이 되어 견디지 못하지만, 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회는 참 현명하구나!”<sup>65)</sup>

“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다. 회는 참 현명하구나!”라고 했다. 안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때, 안연의 현명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경제 현상으로서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할 수 있다.

이상, 경제현상으로서 가난(貧)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을 정리한다. 이 시선은 가난(貧)을 몸-놀이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는 것이다. 몸-놀이가 전개되는 현상의 무한성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는 현상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일단사(一單食), 일표음(一瓢飲), 그리고 재루항(在陋巷)이다. 몸-놀이를 이러한 현상에 넣어서 바라보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며 불행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찾는 문제의 답, 즉 안연의 즐거움이 무엇이냐는

65)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54.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공자에 의하면 안연에게는 자신의 즐거움이 분명하며, 더 나아가 그 즐거움을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인간의 현명함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앞 문단에서 제시한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가난(貧)과 그에 관련된 즐거움(樂)이 무엇인지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貧而樂<sup>66)</sup>

위의 인용인 『논어(論語)』 「학이」 15장에 등장하는 빈이락(貧而樂)과 「옹야」 9장의 불개기락(不改其樂)은 서로 다를 수가 없다. 따라서 가난(貧)을 향한 공자의 생각은 빈(貧)이 얼마든지 근심과 걱정으로서 우(憂)로 직결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빈(貧)이 즐거움으로써 낙(樂)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몸-놀이의 경제 현상으로서 가난(貧)에 국한된 것이므로 이 경우 절대적으로 후자를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앞의 문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가난(貧)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문제의식을 위와 같이 정리하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은 쉽게 주어진다. 그것은 바로 ‘감정과학’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충분히 입증하였다. 그리고 학문은 현명함(賢)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자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가난(貧)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하여 안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이해는 경제에서의 가난(貧)의 개념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감정과학의 논리는 몸-놀이를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는 몸-생김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몸-놀이를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한다. 이 논리를 그대로 가난(貧)에 적용할 수 있다. 가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은 몸-놀이의 현상으로 가난을 바라본다. 그러나 감정과학의 논리에 의하면 몸-놀이의 현상 이전에 있는 몸-생김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는 방법은 몸에 나아가 그것의 생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방법은 몸의 현상 또는 몸의 생김에 대한 현상에 의존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자기 몸에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몸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진실을 인과의 필연성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몸의 현상이 아니라 몸이 자기

---

66) 『論語』, 「學而」 15장.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생김의 진실을 인과의 필연성으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몸의 현상은 사라지고 없다. 오직 자기 몸 하나만이 존재한다. 단 하나로 존재하는 몸에 나아가 그것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몸을 경제 현상으로 바라보면, 빈(貧)일까 부(富)일까? 당연히 이 몸은 오직 자기 몸 하나로 존재하며 몸을 감각적으로 꾸며주는 그 어떠한 술어(述語)도 사라지고 없다. 옷, 집, 자동차, 재산 등과 같은 것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단 하나의 몸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감정과학의 논리가 배우는 몸은 몸 그 자체일 뿐 몸을 감각적으로 꾸며주는 술어(述語)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몸은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가난의 ‘빈’(貧)이다. 그런데 빈(貧)으로 존재하는 이 몸이 자기 생김에 관하여 본래부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영원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몸-생김의 진실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이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최고의 완전성 그 자체로 존재하는 완전한 행복이다.

이상의 논의가 가난(貧)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이다. 여기에서 가난(貧)은 ‘몸 그 자체’이며 몸을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감각적 현상이나 술어 일체가 사라지고 없다. 마침내 이 가난(貧)의 몸에서 자기 스스로 깨닫는 자기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자기 몸은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진실은 영원의 필연성이므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 2) 논의의 요약

우리는 가난(貧)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몸-놀이 현상으로서 가난(貧)

: 우리가 가난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당연히 슬픔과 근심 그리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이 감정을 느끼는 한에서 당연히 불행을 느낀다.

### ②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로서 가난(貧)

: 우리가 가난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가난(貧)은 ‘몸 그 자체’를 지시한다. 이 가난의 몸에 나아가 감정과학이 깨닫는 진실은 가난(貧)을



현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해석하는 불행을 최고의 완전한 행복으로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지금 내 몸이 처한 가난의 현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난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이성(理性)은 필연적으로 그 방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즐거움을 버리거나 바꾸지 않은 안연(顔淵=回)의 현명함이다. 우리는 욕망의 이성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시선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살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자포자기의 절망이다. 이 절망으로 인해 자기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나 두 번째 시선으로 경제를 이해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은 나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지킬 수 있다. 절대적으로 자포자기의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자생력으로 ‘나’는 가난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의 힘으로 가난을 풍요로움으로 엮어나갈 수 있게 된다.

## 2.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 1) 공자의 호학(好學)

가난(貧)을 몸-놀이의 경제 현상만으로 바라보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감정과학을 연마하면 할수록 가난의 진실은 몸-생김에 고유한 진실로 환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제적 환경을 탓하며 불행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경제적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불행과 절망으로 끌고 간다. 이러한 비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감정과학을 연마하는 것이다.

감정과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면, 가난의 현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동성으로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의 첫 단추를 자기 밖의 어떤 외부 원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동적인 힘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끼우는 것이다. 이 이유로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이 감정과학을 행복의 기초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자도 행복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 환 십 실 지 읍 필 유 충 신 여 구 자 연 불 여 구 지 호 학 야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sup>67)</sup>

공자는 자기를 ‘호학’(好學)으로 소개한다. 여기에서 학문은 당연히 ‘감정과학’이다. 그리고 감정과학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학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양보를 용납하지 않고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자기 본래의 진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성스러움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 사실을 ‘불여구지호학’(不如丘之好學)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나는 호학(好學)이지만, 너는 호학(好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감정과학에 어두운 것이다. 더 나아가 호학(好學)을 정도의 문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공자의 호학(好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생김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인식의 명백성만 용납된다. 비교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해는 사실상 해석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앞의 인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자 환 십 실 지 읍 필 유 충 신 여 구 자 연 불 여 구 지 호 학 야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 사는 마을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이해 안에서 자기 생명의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믿고 산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통된 진실이다. 그러나 이 진실을 향한 배움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가 깨닫는 것이므로 자기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서 ‘여’(如)는 모두에게 공통된 진리이다. ‘불여’(不如)는 이 진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각자 자기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강조이다. 자기 생명의 진실은 자기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감정과학을 연마함으로써 가난(貧)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돈에 끝없는 결핍증과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에 눈을 감거나 돈을 천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자기 자신은 이미 최고의 완전한 행복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행복의 진실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보다 더 크게 하는 자기실현의 경제를 살게 된다.

67) 『論語』, 「公治長」 27장.

## 2) 공자의 종오소호(從吾所好)

돈에 예속되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 안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다. 공자도 이러한 자기실현의 경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sup>68)</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점이다.

- ① 부(富)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다.
- ② 그러나 부(富)는 엄밀히 말해서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자기 행복 안에서 자기 행복을 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부(富)이다.

공자는 절대적으로 부(富)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추구한다. 부(富)를 자기 밖에서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절대적으로 부(富)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상하는 부(富)를 구하자마자 그 즉시 자기는 방금 구하게 된 부(富) 보다 더 큰 부(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비례하여 자기는 이전 보다 더 큰 빈(貧)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결국 부(富)는 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것이 불가구(不可求)이다. 이런 방식으로 부(富)를 이해하면, 그런 부(富)는 절대적으로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富) 앞에서 절대적인 절망과 결핍증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부(富)가 없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종오소호’(從吾所好)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

- ① 소호(所好)는 호학(好學)이다.
- ② 이미 완전한 행복이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이행하는 것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

68) 『論語』, 「述而」 11장.

가는 것이다.

공자는 자기를 호학(好學)으로 정의한다. 이에 근거하여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 공자가 좋아하는 것은 당연히 감정과학이다. 이 학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몸-생김의 진실인 천명지성(天命之性)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몸-생김의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로부터 우리는 솔성지도(率性之道)를 이해한다. 몸-생김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몸-놀이의 진실 또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종오소호’(從吾所好)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부(富)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빈(貧)은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그렇다면 부(富)는 당연히 이 진실대로 살아가는 몸-놀이이다. 몸이 자기 안에 자기 생김의 진실로 가지고 있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면, ‘빈이락’(貧而樂)이다. 이것으로 행복의 첫 단추를 완전하게 끼우게 된다. 그 다음은 당연히 그 뒤에 따르는 행복의 단추를 계속 끼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부(富)이다. 왜냐하면 행복의 완전성이 보다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조중빈도 다음과 같이 부(富)의 진실을 확인한다.

빈(貧)과 사(死)는 결핍이 아니라 기본이다. 누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번다. 무슨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 돈을 벌어들이니 그게 곧 부자이다.

69)

부(富)는 자기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빈(貧)이 이미 최고의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 행복의 진실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이미 부(富)이다. 그 결과는 생명과 사랑만을 긍정하고 증진하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으로서 부유함(富)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과학의 진실 안에서 빈부(貧富)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형성하면, 이들은 서로를 해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빈(貧)이 곧 부(富)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진실이 분명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경제적 현상 같은 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부정하거나 상실하지 않는다. 이미 본래부터 우리는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행복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빈이락(貧而樂)이다. 이 빈(貧)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보다 더 크게 할 때 부(富)는 저절로 실현된다.

---

69)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79.

## 제2절 부이호례(富而好禮)

### 1. ‘부’(富)로 존재하는 감정

앞에서 논의한 빈부(貧富)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부(富)의 개념을 보다 더 깊게 탐구하겠다.

#### 1) 부(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가난(貧)에 대한 두 개의 시선을 정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① 몸-놀이의 경제 현상으로서 부(富)

② 몸-생김의 진실 안에서 몸-놀이의 진실로서 부(富)

몸-놀이의 현상으로서 부(富)를 이해하면, 이 부(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위태롭다.

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부(富)를 이해하면, 빈(貧)은 불선(不善) 또는 악(惡)으로 규정되며 그와 반대로 부(富)는 선(善)으로 규정된다. 경제 현상으로서 빈(貧)은 우리 모두가 욕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한에서 빈(貧)은 불선(不善)이나 악(惡)이다. 갑자기 빈부(貧富)가 선악의 대결 구도에 빠지게 된다.

② 경제 현상으로 부(富)를 이해하면, 그 누구도 부자(富者)로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앞의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富)를 밖에서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큰 결핍증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위와 같이 경제 현상으로서 부(富)를 이해하는 위태로움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은 공자의 언급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 이 호 례  
富而好禮.<sup>70)</sup>

공자는 부(富)가 예(禮)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현상으로 이해하는 부(富)는 결코 예(禮)를 좋아할 수 없다. 이미 빈부(貧富)가 갈등에 빠져 있는데, 이 경우 부(富)가 빈(貧)을 존중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부(富)에게 빈(貧)은 나쁜 것 또는 피하고 싶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빈(貧)에게 부(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더 나아가 경제 현상으로서 부(富)는 자기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결핍증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부(富)는 자기를 끝없는 절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예(禮)를 상실한다.

그러나 공자는 ‘부이호례’(富而好禮)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학문은 현상에 의존하는 해석을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부(富)는 경제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공자의 ‘부이호례’를 이해해야 한다.

감정과학에 의하면 빈부(貧富)는 서로 반목하거나 갈등하는 선악(善惡) 구도에 놓이지 않는다. 오히려 ‘빈(貧) = 부(富)’의 진실 안에 존재한다. 이 등식은 경제 현상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감정과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둘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놓인 ‘=’에 대한 분석이다. 이 등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몸에 나아가 몸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로부터 가난(貧)으로 존재하는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한다.

가난(貧)의 몸에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확인하면, 이로부터 감정과학의 논리에 의해서 술성지도(率性之道)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술성지도는 감정의 미발(未發), 즉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다. 가난(貧)의 몸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최고의 행복으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은 몸-놀이의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감정의 미발(未發)이다. 이 본성으로부터 몸-놀이의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새로운 감정으로 생성되며 동시에 변화한다. 이것이 감정의 이발(已發)이다.

우리가 가난(貧)의 몸에 근거하여 감정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을 이해하면, 이때 비로소 감정과학이 정의하는 ‘부’(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감정과학의 가

70) 『論語』, 「學而」 15장.

난(貧)은 몸-생김과 몸-놀이를 일관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행복이다. 천명지성(天命之性)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가난(貧)은 몸-놀이에서 감정의 미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본래부터 무한한 감정의 이발(已發)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감정의 미발 안에서 무한한 감정이 무한하게 생성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정의 미발을 가능태(可能態)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감정의 이발(已發)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감정의 미발(未發)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감정의 미발은 이발에게 ‘가능태’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필연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빈(貧) = 부(富)’의 등식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의 미발로서 ‘빈’(貧)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의 이발(已發)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에서 이미 자기 안에 무한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진실에 근거하여 ‘빈(貧) = 부(富)’의 등식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이 등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공자의 ‘부이호례’(富而好禮)를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부(富)는 자기 존재에 관하여 빈(貧)을 기원으로 가지고 있다. 빈(貧)은 자기 안에 부(富)를 품고 있으며, 부(富)는 빈(貧)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자기의 무한한 풍요를 즐긴다. 이렇게 부(富)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면, ‘빈(貧) = 부(富)’의 등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부(富)의 호례(好禮)이다.

## 2) 논의의 요약

우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공자의 부(富)를 이해할 수 있다.

### ① 몸-놀이 현상으로서 부(富)

: 경제적 현상으로 부(富)를 이해하면, 부자(富者)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의 행복은 우리 모두가 부자(富者)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현상으로 부(富)와 부자(富者)를 이해하면, 경제의 행복은 절망과 불행이 되고 만다.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불행과 절망에 빠진 부(富)와 부자(富者)는 뜻밖에 자기의 수준이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빈(貧)과 빈자(貧者)를 무시하며 함부로 한다. 빈부(貧富)가 서로를 악(惡)으로 규정하며 전쟁상태에 빠지고 만다. 따라서 경제 현상으로 부(富)를 이해하면, 호례(好禮)는 상상할 수 없으며 그 반대로 절망과 불행만 넘쳐난다.

② 몸-생김의 진실로부터 연역되는 몸-놀이 진실로서 부(富)

: 감정과학에 의해서 가난의 빈(貧)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빈(貧)과 부(富)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다. 이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빈부(貧富)는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한다. 우리 모두는 빈자(貧者)이면서 동시에 부자(富者)이다.

여기에서 빈자(貧者)는 몸 그 자체의 소중함을 뜻한다.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몸의 현상이 아니라 몸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그 자체의 진실이다. 오직 이 진실만이 몸의 생명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영원무한의 우리 몸은 자기 스스로 무한한 감정으로 자신의 영원무한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진실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부자(富者)이다.

우리가 이렇게 빈부(貧富)를 이해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성스러운 빈자(貧者)로서 성스러운 풍요로움을 누리는 부자(富者)라는 사실 안에서 평등하다.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감정과학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감정과학 안에서 빈부(貧富)의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 모두는 최고의 완전성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각자 자기가 욕망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 결과가 경제적 번영과 행복이다.

이상, 빈(貧)과 같은 방식으로 부(富)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선을 정리했다. 이 둘 중 어느 이해가 빈부(貧富)에 대한 참다운 이해이며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①’으로 경제를 이해하면, 빈부(貧富) 모두가 절망과 불행에 빠진다. 반면 ‘②’으로 경제를 이해하면, 빈부(貧富)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빈부(貧富) 모두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2. 감정의 자기이해로부터 행복

감정과학에 의하면, 부(富)는 감정의 진실이다. 감정은 빈(貧)으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자기 본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오직 이 본성만을 필연적으로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으로 생성되고 동시에 변화한다. 이러한 감정의 무한성이 부(富)이다. 이렇게 감정의 빈부(貧富)를 이해하면, 이 진실은 『중용(中庸)』이 감정의 진실로 밝혀준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이와 관련하여 2장 2절을 참고.]. 쉬운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감정의 빈(貧) = 감정의 미발(未發)

감정의 부(富) = 감정의 이발(已發)

위의 정리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실을 적용해야 한다.

① 빈(貧) = 부(富)이다.

② 부이호례(富而好禮): 부(富)는 빈(貧)을 자기 본성으로 갖는다.

적용의 결과 우리는 ‘부이호례’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발(已發)의 무한성으로 존재하는 부자(富者)의 감정은 반드시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未發)으로 존재하는 빈자(貧者)의 감정 안에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감정과학은 감정의 ‘자기이해’라고 정의한다. 이 이해가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할 수 있다.

부이호례(富而好禮) = 감정의 자기이해

공자는 감정의 자기이해로서 ‘부이호례’(富而好禮)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애<sup>애</sup>지<sup>지</sup>욕<sup>욕</sup>기<sup>기</sup>생<sup>생</sup>, 오<sup>오</sup>지<sup>지</sup>욕<sup>욕</sup>기<sup>기</sup>사<sup>사</sup>, 기<sup>기</sup>욕<sup>욕</sup>기<sup>기</sup>생<sup>생</sup>, 우<sup>우</sup>욕<sup>욕</sup>기<sup>기</sup>사<sup>사</sup>, 시<sup>시</sup>혹<sup>혹</sup>야<sup>야</sup>.<sup>71)</sup>

여기에서 애오(愛惡)는 부자(富者)의 감정이다. 이발(已發)의 감정이며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감정을 대표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 사랑(愛)할 때에는 살기를 바라지만, 미워(惡)할 때에는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혹(惑)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감정은 혹(惑)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감정을 따라서 생각을 할 때 그만 생각을 잘못하게 될 때, 그것이 혹(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욕기생, 우욕기사’(既欲其生, 又欲其死)이다.

우리는 대체로 사랑할 때에는 살라고 하면서 미워할 때에는 죽으라고 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미운 것이 사라지기를 바란

71) 『論語』, 「顏淵」 10장.

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공자는 미혹된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왜 이런 가르침을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는지 생각해 보면, 문제의 정답은 감정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감정의 자기이해로서 부이호례(富而好禮)가 그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등식을 다시 인용하고 그 뜻을 밝힌 다음, 공자의 미혹(迷惑)을 설명하겠다.

부이호례(富而好禮) = 감정의 자기이해

이 등식은 감정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확인한다. 감정의 미발(未發)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감정의 이발(已發)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오직 생명과 사랑만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증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발의 감정은 모든 부(富)를 다 갖춘 완전한 부자(富者)이지만, 그 모든 감정의 부(富)는 오직 영원의 필연성으로 생명과 사랑만을 긍정한다. 이외 다른 것은 없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에 의해서 부자(富者)로 존재하는 감정의 부자(富者)는 자신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확인한다.

사랑을 뜻하는 ‘애’(愛)의 감정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미발(未發)로 갖는다. 마찬가지로 미움을 뜻하는 ‘오’(惡)의 감정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미발(未發)로 갖는다. 애오(愛惡)가 이와 같은 감정과학의 논리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이 이해로부터 애(愛)는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지켜나가며, 오(惡) 역시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고 증진한다.

조중빈도 이 주제를 감정과학으로 이해한다.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잘 생각해 보라. 바로 조금 전에 좋아 죽겠다고 물고 빨고 하지 않았던가. 밉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sup>72)</sup>

여기에서 핵심은 “잘 생각해 보라.”이다. 감정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감정의 자기이해로서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감정 스스로 자기에 대해 나아가 자기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인과의 필연성을 생각하고 배워보면, 궁극적으로 자기 본성에 고유한 필연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의 결과는 생명과 사랑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감정의 미발이 본래부터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논어(論語)』에서 감정의 자기이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72)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72.

일 조 지 분 망 기 신 이 급 기 친 비 혹 여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非惑與.<sup>73)</sup>

분노(忿)은 이발(已發)의 감정이다. 하루아침을 뜻하는 ‘일조’(一朝)는 공간과 시간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이 감정을 이발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망기신’(忘其身), 즉 자기(其) 몸(身)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이 ‘망기신’이 바로 예(禮)를 상실하는 것이다. 망기신(忘其身)은 반드시 자기 몸을 낳아주신 부모(親)를 잊는 지경으로 끌고 간다. 이것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감정의 미발(未發)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가 바로 ‘혹’(惑)이다. 감정이 자기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비극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분노’(忿)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마음(감정)이 ‘자기 몸’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가 느끼는 ‘분노’도 ‘나’의 몸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나’의 몸이 “‘性理(성리)’發(발)–‘性氣(성기)’隨(수)”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지금 ‘나’가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은 당연히 “‘情理(정리)’發(발)–‘情氣(정기)’隨(수)”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끼는 마음(감정)이 자기 몸을 잊어버리면, “‘性理(성리)’發(발)–‘性氣(성기)’隨(수)”로부터 필연적인 “‘情理(정리)’發(발)–‘情氣(정기)’隨(수)”를 알 수 없습니다.<sup>74)</sup>

“‘情理(정리)’發(발)–‘情氣(정기)’隨(수)”에서 정리(情理)는 감정의 미발(未發)이며 감정의 ‘빈’(貧)이다. 정기(情氣)는 감정의 이발(已發)이며 감정의 ‘부’(富)이다. 이 둘 사이에 놓인 본성의 필연성은 정리(情理) 안에서 정기(情氣)의 무한성이기 때문에 “‘情理(정리)’發(발)–‘情氣(정기)’隨(수)”는 실질적으로 감정의 자기이해이며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과학의 빈부(貧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

① 빈(貧)은 몸-생김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빈(貧)은 몸-놀이의 진실로 존재하며, 감정의 미발(未發)이라 부른다.

② 빈(貧)으로 존재하는 감정의 미발(未發) 안에서 이발(已發)의 감정은 무한하게

73) 『論語』, 「顔淵」 21장.

7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64.

생성하며 동시에 변화한다. 이 이발(已發)의 감정을 부(富)라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富)로 존재하는 이발(已發)의 감정은 반드시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미발(未發)의 감정 안에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 ③ 이 이해가 감정의 자기이해이며,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이 이해를 형성하는 인간은 절대적인 행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행복은 경제 현상의 빈부(貧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의 진실을 이해할 때 빈부(貧富)는 생명과 사랑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므로 결국 이 둘을 경제적 부(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

- ④ 따라서 오직 감정과학의 빈부(貧富)만이 경제적 행복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제4장 『논어(論語)』 감정과학의 행복 경제

본 논문의 2장은 공자의 학문론을 기록한 『논어(論語)』를 감정과학으로 증명했다. 그에 이어서 3장은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유교문화의 빈부(貧富)에 대한 개념을 감정과학으로 정리했다. 이 두 개의 장에 근거하여 여기에서는 감정과학에 의해서 정초된 유교문화의 경제 이론을 정립하겠다.

### 제1절 완전한 나와 너의 교차

#### 1. 나를 믿고 배우는 충신(忠信)

‘나’의 진실은 완전한 빈(貧)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부(富)이다. 이 진실은 내 몸의 감각적 현상이나 내 몸이 처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몸에 나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이다. 마음의 ‘몸’은 자기 안에 자기 존재를 정립하는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가지고 있고, 몸의 ‘마음’은 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이 이해는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몸 그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 몸을 감각적으로 설명하는 술어(述語)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오직 지금 내 몸 ‘하나’, 이것을 본 논문은 ‘빈’(貧)이라고 정의했다. 이 빈(貧)에 나아가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완전한 빈(貧)의 내 몸에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이며, 이것을 지금 ‘나’의 몸에 고유한 진실로 확인한 것이 『중용(中庸)』의 천명지성(天命之性)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빈부(貧富) 모두는 절망에 빠진다. 빈(貧)은 끝없는 절망에 빠지고, 부(富)는 부(富)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을 빈(貧)의 절망에 밀어 넣는다. 급기야 이 둘은 서로를 미워하며 중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면, ‘나’는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기 행복이 분명할 때, ‘나’는 빈부의 절망에서 자유롭게 된다.

경제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행복이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의 기초이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주 충 신, 무 우 불 여 기 자.<sup>75)</sup>  
主忠信, 無友不如己者.<sup>75)</sup>

여기에서 충(忠)은 생각하는 마음을 자기 몸에 두어 자기 몸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그것이다. 이 이해를 형성하면, ‘나’는 몸의 본성이 몸-놀이의 본성으로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몸-놀이의 본질은 욕망이라고 했다. 즉, 욕망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충(忠)이며,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형성한 이 이해를 믿는 것이 신(信)이다.

이렇게 자기 욕망의 진실을 자기 몸의 진실 안에서 이해하고 믿으면(忠信), 그 즉시 자기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게 된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자기 몸의 감정은 그 자체의 무한성에 근거하여 완전한 부(富)이다. 이 모든 부(富)가 완전한 빈(貧)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몸으로 생겨나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나’는 절대적으로 충신(忠信) 안에서 자기 감정의 무한성을 무한하게 배워서 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나’ 자신이 자기 진실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믿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진실이 바로 ‘무우불여기’(無友不如己)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믿고 배워서 감정의 무한성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확인으로 인하여 몸으로 살아가는 몸-놀이는 어떤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철두철미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

자기이해의 믿음으로 자기를 믿고 배우는 충신(忠信)에 대해서 조중빈도 같은 논리로 번역한다.

자기의 욕망에 충성하며 자기를 믿고, 자기답지 않음과 친구하지 않고,<sup>76)</sup>

자기가 자기의 욕망에 충성하며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욕망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이해 안에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자기 욕망을 떠날 수 없으며, 동시에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무한한 감정을 떠날 수 없다.

75) 『論語』, 「學而」 8장.

76)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45.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욕망의 진실 안에서 자기 감정의 무한성을 참답게 이해하면, 완전한 빈(貧)으로 존재하는 ‘나’는 동시에 완전한 부(富)로 존재하는 ‘나’이다.

이상의 정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엄밀히 말해서 가난(貧)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貧)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빈(貧)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곧 부(富)를 최고의 완전성으로 누리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양 고대의 철학자 예수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sup>77)</sup>

예수의 말을 감각적 현상이나 경제적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가난을 경제 현상으로 보면 가난에 처한 사람은 절대적 절망에 빠져 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여기의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가난의 절망을 언젠가 벗어나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 이것을 긍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가난’과 ‘하늘나라’는 감정과학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완전한 빈(貧)으로 존재하는 몸에 나아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

예수의 가난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예수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sup>78)</sup>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이것을 유교문화의 언어로 표현하면, 천자(天子)이다. 그런데 천자(天子)라는 말은 자기 몸에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은 본 논문에서 계속해서 논한 바와 같이 완전한 가난(貧)의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분명할 때 성립한다. 이 인식 안에서 ‘나’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부자(富者)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사실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77) 『성경』, 「마태복음」, 5:3.

78) 『성경』, 「마태복음」, 6: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몸-생김의 진리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냅니다. 생김의 기원으로 존재하는 신은 우리 몸-생김의 본성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생겨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몸-생김의 진실을 확인하면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몸-놀이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몸-놀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필연성을 확인합니다.<sup>79)</sup>

천명지성(天命之性)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며 동시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성과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단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즉시 하늘나라에서 생겨난 ‘나’의 몸은 모든 공간과 시간의 놀이를 하늘나라의 진실 안에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자명하게 이해하는 ‘나’의 진실을 확립하면, ‘나’의 생김과 놀이는 본래부터 영원의 필연성으로 최고의 행복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한다. 이 이해가 분명할 때 경제적 현상으로서 빈부(貧富)는 절망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무한한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이 빈부(貧富)이다. 빈(貧)과 부(富)가 모두 하늘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빈부(貧富)의 개념을 감정과학으로 정의하면, ‘빈(貧)=부(富)’의 등식이 성립하므로 이때 비로소 빈부가 서로 사랑하는 경제의 토대를 확립하게 된다.

## 2. 너를 믿고 배우는 사의(徙義)

‘나’ 자신이 자기이해를 확립하는 이성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을 이해하면, ‘나’는 자기이해의 자기 진리 안에서 ‘너’의 진리를 이해한다. ‘나’의 진실을 ‘빈(貧)=부(富)’의 등식으로 이해하듯이, ‘나’는 ‘너’의 진실을 ‘빈(貧)=부(富)’의 등식으로 이해한다. ‘부이호례’(富而好禮)는 ‘나’의 진실을 배우는 감정과학이지만, 동시에 ‘너’의 진실을 배우는 감정과학으로 진실을 드러낸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이해가 분명할 때, ‘나’는 ‘너’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배운다. 그 결과 생명과 사랑의 진실은 확고부동하다.

‘나’ 자신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곧 ‘너’를 향한 참다운 이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토대라는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79) 성동권,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248.



자 완 주 충 신 사 의 숭 덕 야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sup>80)</sup>

바로 앞의 항목에서 정리했듯이, 충신(忠信)은 ‘나’를 믿고 배우는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이 배움이 ‘너’를 믿고 배우는 학문으로 반드시 전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사의’(徙義)이다. 조중빈도 다음과 같이 본 논문의 이해를 확인한다.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가 자동빵이라는 이야기이다. ... ‘나’의 일 보는 논리를 계속 믿고 나가니 ‘너’의 일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sup>81)</sup>

조중빈은 ‘주충신사의’(主忠信徙義)를 “‘나’의 일 보는 논리를 계속 믿고 나가니 ‘너’의 일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義)는 엄밀히 말해서 행동이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나’ 자신을 내가 배워서 믿게 되는 ‘나’의 영원한 진리에 근거하여 ‘너’를 배우며 믿는 학문의 성스러움이 의(義)이다. 즉, 나와 너의 ‘논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논리 안에서 완전한 ‘나’와 완전한 ‘너’가 무한히 교차하며 무한하게 서로를 배워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공자의 유교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양 철학의 기틀을 놓은 소크라테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의 『파이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소크라테스의 유언을 들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 오, 크리톤, 별로 당부할 것도 없네. 단지 내가 언제나 자네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 그렇게 하면 다른 당부는 하지 않더라도 나나 우리 집 식구들에게나 또는 자네들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될 걸세. 그렇지만 자네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지 않고 지금 말한 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을 걸세.<sup>82)</sup>

소크라테스의 논리는 감정과학의 논리와 일치한다. “자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충신(忠信)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기를 배우는 자기이해 안에서 자기를 믿는 것이 곧 ‘너’를 지키는 것이 된다.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을 돌보게. 그렇게 하면 다른 당부는 하지 않더라

80) 『論語』, 「顔淵」 10장.

81)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271-272.

82) 플라톤 저, 최현 역, 『파이돈』 (범우사 2008), p. 135.

도 나나 우리 집 식구들에게나 또는 자네들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될 걸세.”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사의(徙義)이다.

성동권은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마음 스스로 사유하는 자신의 정신력으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거나, 또는 마음이 감정에 나아가 감정의 본성을 확인함으로써 몸의 생김과 놀이를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이해하는 것 이외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몸-생김을 이해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몸-놀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이렇게 물자체의 본성을 인식하면 그것으로 놀이의 윤리를 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sup>83)</sup>

‘나’ 자신을 배워서 ‘나’ 자신의 진리를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면, 이 진리가 곧 ‘너’의 진리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이해에 근거하여 무한한 ‘너’에 나아가 배우면 그 모든 무한성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으로 나와 너는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무한하게 교차하게 되며, 이것으로 우리 모두는 무한한 행복을 누린다. 이 행복은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만을 확인한다. 이 행복이 분명할 때 경제를 행복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서양 중세의 철학자 보이티우스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행에 항거하고 덕행을 닦으라. 올바른 희망에 마음을 들어 올리라. 하늘로 겸손된 기도를 올리라.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자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르게 살아야 할 크나큰 필연성을 지니고 있으니 즉 너희는 모든 것을 투시하는 재판관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니라.<sup>84)</sup>

여기에서 핵심은 “너희는 살아야 할 크나큰 필연성”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한 방법은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자 하지 않는다면”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자기이해 안에서 자기의 진실을 필연성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필연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필연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의 필연성이다. 이에 대한 감정과학의 대답은 당연히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우리 자신의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겸손된 기도를 올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기도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확

83) 성동권, 『서양 고대 그리스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p. 101-102.

84) 보이티우스 저, 정의채 역, 『철학의 위안』. (바오로딸 2007), p. 211.

인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도는 지천명(知天命)이며, 실상은 자기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천자’(天子)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본래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필연성에 대한 이해이다. 이 이해로부터 ‘나’는 천자(天子)로서 몸-놀이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필연성이다. 그 결과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몸-놀이에서 무한히 증진시켜나게 된다.

이 진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감정과학의 논리가 보이티우스에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약속 또는 위안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이티우스가 자기 몸의 본성 그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는 필연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의 축복 속에서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영원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부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지만, 보이티우스는 이 진실을 알아서 이 진실대로 살았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sup>85)</sup>

“보이티우스는 이 진실을 알아서 이 진실대로 살았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가 ‘주충신사의’(主忠信徙義)이다.

그러므로 빈부(貧富)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에 근거하여 ‘나’ 자신이 자기의 진실을 이해하면, ‘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너’와 무한하게 교차한다. 그리고 그 교차는 오직 최고의 완전성으로 생명과 사랑만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의 진실을 확인할 때, 경제는 생명과 사랑을 자기의 존립 기초로 확인한다. 이것이 감정과학의 경제 이론의 기초이다.

## 제2절 영원무한 사랑의 회계학

### 1. 나의 이기적인 욕망

지금 ‘나’의 몸이 완전한 빈(貧)이며 동시에 완전한 부(富)이다. 이 ‘등식’(貧=富)에서 핵심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완전한 빈(貧)으로 존재하는 몸 그 자체의

85) 성동권, 『서양 중세 초기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120.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 진실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이 생성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한 부(富)이다. 본 논문은 이 진실을 단 하나의 실체로서 ‘천’(天)이라고 정의한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체로서 천(天)이 존재하고, 이 존재 안에서 몸의 생김과 놀이는 무한하다.

이 진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 완 천 생 덕 여 여  
子曰: 天生德於予.<sup>86)</sup>

하늘(天)이 나(予)에게 덕(德)을 낳아주었다면, 이때의 덕(德)은 당연히 하늘의 덕이다. 첫째, 하늘은 자기에겐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을 뿐, 자기에겐 없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없다. 둘째, 하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완전하게 나에게 줄 수 있을 뿐, 자기가 가진 것을 불완전하게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하늘은 불완전한 것을 주는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논점을 종합하면, 하늘은 자신이 가진 완전한 덕(德)을 ‘나’에게 완전하게 주었다.

참고로 여기에서 ‘나’를 뜻하는 여(予)를 공자에 국한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늘이 공자의 ‘나’(予)에게만 덕을 주고 지금의 ‘나’(予)에게는 덕을 주지 않았다면, 그 즉시 하늘의 능력은 유한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조선 시대 성리학자 퇴계의 「서명고증강의」를 인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선생의 말씀에 충실하자면, ‘여’(予)와 ‘오’(吾)는 退溪 선생 또는 이 소논문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논자 자신이어야 한다.<sup>87)</sup>

여(予)가 가리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위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한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지금의 ‘나’에게 주었다.

이 사실이 완전한 빈(貧)이며 동시에 완전한 부(富)이다. 이 사실을 『논어(論語)』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부 귀 재 천  
富貴在天.<sup>88)</sup>

86) 『論語』, 「述而」 22장.

87) 성동권,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17(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p. 6.

『논어(論語)』는 분명히 말한다. 부귀(富貴)는 천(天)에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① 자연의 천지만물을 낳는 궁극 원인으로서는 단 하나의 실체는 천(天)이다. 이 원인은 자기에겐 없는 것을 낳을 수 없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면 자연의 천지만물 가운데 어떤 것은 천(天)을 자기 존재의 원인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즉시 천(天)의 불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따라서 천(天)은 자기가 낳는 ‘나’의 몸을 포함하여 자연의 천지만물을 본래부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② 천(天)은 바로 앞의 ‘①’에 근거하여 최고의 완전성으로 그 존재 자체가 ‘부귀’(富貴)이다. 그런데 이 천(天)은 ‘천생덕어여’(天生德於予)의 천(天)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천(天)의 부귀는 지금 나의 본질로 존재하며, 사실상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위의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이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는 ‘완전한 빈(貧) = 완전한 부(富)’의 등식이 다시 증명된다. 이 증명으로부터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의 행복 및 나 자신에게 고유한 최고의 부귀(富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대해서 참답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부귀(富貴)를 최고의 완전성으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의 궁극 목적을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는 데에 두는 이상, ‘나’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핵심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지 아 자 기 천 호  
知我者, 其天乎.<sup>89)</sup>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아자’(知我者)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천명(知天命)과 같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기천호’(其天乎)이다. 자기(其)가 사실상 하늘(天)과 본래부터 하나로 존재하며 그것으로부터 지금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천호’(其天乎)에 대한 번

88) 『論語』, 「顔淵」 5장.

89) 『論語』, 「憲問」 37장.

역이다. 두 가지 번역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기천호’(其天乎)

: 아마 하늘이 ‘나’를 알아 줄 것이다.

② ‘기천호’(其天乎)

: 자기가 본래부터 하늘이라는 것을 안다.

종래의 번역은 모두가 첫 번째를 따른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생덕어여’(天生德於予)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천명’(知天命)이다. 그런데 천명(天命)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천(天) 자신이다. ‘천’은 영원무한을 본질로 갖는 단 하나의 실체이므로 그것의 명(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영원무한의 실체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천명’은 사실상 천(天)이 주어이다. 이 앞이 우리 안에서 분명한 이상, 당연히 ‘나’와 ‘천’은 본질에 있어서 본래부터 영원의 결정으로 ‘하나’이다. 따라서 올바른 번역은 ‘②’이다.

조중빈도 본 논문이 이해하는 감정과학과 같은 방식으로 위의 인용을 번역한다.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sup>90)</sup>

‘나’는 본래부터 최고의 부귀(富貴)로 존재하는 천(天)과 하나이다. 이 사실을 배워서 이해하는 ‘나’는 마침내 진실로 ‘나’ 자신의 부귀를 이해한다. 이 이상 경제의 행복이 없다. 따라서 부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에서 지금 ‘나’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한 부귀로 누리는 방법은 ‘나’ 자신의 진실을 ‘나’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부귀를 최고의 완전성으로 추구하는 욕망은 철두철미 이기적이어야 하며, 이 욕망은 반드시 ‘나’ 자신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에 궁극의 목적을 둔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 완 군 자 구 제 기  
子曰: 君子求諸己.<sup>91)</sup>

여기에서 군자는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는 군자이다. 왜냐하면 자기 몸의 진실을

90)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1.

91) 『論語』, 「衛靈公」 20장.

배울 때, 자기 존재의 부귀(富貴)를 최고의 완전성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자는 철저히 이기적(利己的)이다. 이 진실에 입각하여 ‘구저기’(求諸己)를 이해하면,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자기의 몸(己) 안에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천(天)이 존재하므로 자기 행복을 위해 철저히 이기적인 군자는 자기 행복의 완전성을 자기 몸에서 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행복과 부귀를 추구하는 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적으로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부귀를 누리게 된다.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경제적 행복과 부귀는 자기 밖에 보다 더 좋은 행복과 부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자기 몸 안에 최고의 행복과 부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진실을 이해한다. 이 이해와 함께 최고의 행복과 부귀를 누린다. 이것이 사랑의 회계학에서 첫 번째 원리이다.

## 2. 너를 사랑하는 나의 고생

영원무한의 사랑이 하는 경제적 계산으로서 ‘사랑의 회계학’은 그 시작이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 이해를 통해서 행복과 부귀를 최고의 완전성으로 누리는 사람이 군자(君子)라고 했다. 이 사람이 선인(善人)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天)의 부귀를 누리는 진짜 부자(富者)이다. 이 사실을 『논어(論語)』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선인시부  
善人是富.<sup>92)</sup>

『논어(論語)』에 의하면, 선인(善人)이 부자(富者)이며 동시에 부(富) 자체이다. 이렇게 부(富)를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지금 ‘나’ 자신의 영원한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학이자 회계학이다. 이 방식 이외 다른 방식으로 부(富)를 이해하면, 그런 부(富)는 끊임없이 자기 밖에서 부(富)를 가져와서 채워야 하는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제학과 회계학은 사실상 ‘약탈’과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이 이 방식으로 부(富)를 추구하면,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감정과학의 경제학으로 부귀를 이해하면, 부귀(富貴)와 빈천(貧賤)이 모두 절망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최고의 완전성으로 부귀를 누리는 축복을 확인한다. 이렇게 자기의 부귀(富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적

92) 『論語』, 「堯曰」 1장.

으로 다른 사람의 부귀(富貴)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귀(富貴)를 확인함으로써 부귀(富貴)가 보다 더 커지는 행복을 누린다. 이 확인을 본 논문은 1절에서 ‘주충신사의’(主忠信徙義)로 정리했다.

이렇게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남의 불행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우지 않는다.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귀를 빼앗지 않는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sup>93)</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밥 한 덩어리 물 말아 먹고, 팔베개하고 잠자더라도 낙이 그 속에 있다. 옳지 못하게 부귀 누리는 것은 내게 뜬구름 같은 일이다.”<sup>94)</sup>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①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②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 보리밥 한 덩어리 물 말아 먹고, 팔베개하고 잠자더라도 낙이 그 속에 있다.

이 문장은 본 논문의 3장 1절에서 정리한 ‘안연’(顔淵)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子曰: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不改其樂. 賢哉, 回也.<sup>95)</sup>

‘반소사음수’(飯疏食飲水)는 ‘일단사, 일표음’(一簞食, 一瓢飲)과 같다. ‘곡굉이침지’

93) 『論語』, 「述而」 15장.

94)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182.

95) 『論語』, 「雍也」 9장.



(曲肱而枕之)는 ‘재루항’(在陋巷)과 같다. ‘악역재기중의’(樂亦在其中矣)는 ‘인불감기우, 회야불개기악’(人不<sub>レ</sub>堪其憂, 回也不改其樂).과 같다.

이렇게 상호 대응을 확인하면, 여기에서 즐거움(樂)은 엄격히 말해서 경제 현상으로서 빈(貧)을 즐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 경제현상으로서 빈(貧)은 ‘알몸’을 드러낸다. 몸을 공간과 시간에 넣어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몸의 술어가 완전히 사라지면, ‘알몸’이 환하게 드러난다. 이 알몸을 즐기는 것이 공자의 즐거움(樂)이다. 왜 알몸이 즐거움일까? 그 몸 안에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몸이 천(天)의 몸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몸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본 논문은 주충신(主忠信)이라고 정의했다.

자기 진실을 배워서 이해하고 믿는 충신(忠信)으로부터 의(義)가 저절로 연역된다고 했다. 이 진실을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불의이부차귀, 어아여부운.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 옳지 못하게 부귀 누리는 것은 내게 뜬구름 같은 일이다.

여기에서 불의(不義)는 자기 본래의 영원한 행복과 부귀(富貴)를 몰라서 자기 밖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부귀를 빼앗는 약탈을 뜻한다. 자기 밖 다른 사람의 부귀(富貴)를 약탈하는 것으로 자신의 부귀(富貴)를 채우는 것이 “불의이부차귀(不義而富且貴)”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부귀(富貴)를 채우면, 그에 비례하여 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1’을 뺏어 오면 ‘2’를 약탈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2’를 뺏어오면 ‘4’를 약탈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끝없는 절망에 빠진다.

이 절망을 “어아여부운(於我如浮雲)”이라 한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부귀(富貴)를 채우면 자기(我)는 보다 더 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我)가 공자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자신으로 이해해야 한다. “옳지 못하게 부귀 누리는 것은 내게 뜬구름 같은 일이다.”라고 번역한 이유이다. 사랑의 회계학에서 제1원칙을 어기고 확보한 ‘부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비극이다.

이상, 영원무한의 사랑을 모르는 경제학의 비극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우리에게서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영원무한의 사랑으로 경제학을 할 때 손익(損益)의 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자하문효, 자왈색난, 유사, 제자복기로, 유주식, 선생찬, 증시이위효호.96)

자하가 효도가 무엇이나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얼굴에 쓰여 있는데도, 일 있을 때 아들이 그 수고를 대신하고, 귀한 음식[술과 밥]이 있을 때 어른에게 먼저 가져다 드린다고 어찌 이것을 효도라 하겠느냐?”97)

여기에서 핵심은 ‘제자복기로, 유주식, 선생찬’(弟子服其勞, 有酒食, 先生饌)이다. 자기의 부귀(富貴)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만을 자기 행복으로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어기지 않는다. 이 원칙이 자기 욕망의 진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실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사랑을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행복으로 추구한다. 이것이 “제자복기로, 유주식, 선생찬(弟子服其勞, 有酒食, 先生饌)”이다. 이것이 사랑의 경제회계이다.

이러한 경제회계의 진실을 공자는 다시 확인한다.

자로문정, 자왈선지로지.98)

자로가 정치가 무엇이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득이 아니라 노고(勞苦)를 우선하는 것이다.”99)

여기에서 핵심은 “선지로지(先之勞之)”이다. 이것은 부귀(富貴)가 자기 몸 밖에 있거나 자기 몸 밖에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야만 자신을 부귀(富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대한 약탈과 완전히 반대된다. 먼저 노고를 하자는 것이 감정과학의 경제학이다. 이 사실을 유영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로(子路)가 물어보는 정치(政治)는 ‘다 좋은 세상’이다. ‘다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나고 물어봤다. 이에 대한 공자(孔子)의 대답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따지는 회계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수고가 먼저라고 한다. 이것이 구애(求愛)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從)이다. 즉 사랑의 종(從)이 되어서 하는 고생이 먼저라고 한다. 구애(求愛)에서 말하는 욕망의 진실은 사랑이다. 욕망의 진실이 사랑이니까 고(苦)를 먼저 하겠다는 선지(先之)이다. 그러므로 먼저 고생하는 것이 노지(勞之)이다. 즉 선지(先之)와 노지(勞之)는 같아서 선지노지(先之勞之)이다.100)

96) 『論語』, 「爲政」 8장.

97)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66.

98) 『論語』, 「子路」 1장.

99) 조중빈 열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87.

100) 유영관,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자신의 부귀(富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종(從)’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이 추구하는 회계학이다. 이것이 경제의 손익(損益)을 계산하는 회계학의 제2원리이다.

그러므로 영원무한의 사랑이 경제의 손익(損益)을 계산하는 회계학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원칙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다.

: 지금 ‘나’의 몸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부귀(富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그것이다.

② 제2원칙은 너를 사랑하는 나의 고생이다.

: 자기 부귀(富貴)를 타당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사랑의 종(從)으로 살아간다. 이 고생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것이 몸의 욕망에 고유한 본질이다.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요약하면, ‘주충신사의’(主忠信徙義)이다. 이것을 단 하나의 개념어로 정리하면, ‘인’(仁)이다. 이 원칙으로 경제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경제학이라고 해도 그것의 실상은 약탈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기 본래의 영원한 부귀(富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경제만이 사랑과 생명을 지켜준다.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겠다.

### 제3절 다 좋은 세상의 경제

#### 1. 덕(德)을 나누는 경제

앞의 절에서 사랑의 회계학을 ‘주충신사의’(主忠信徙義)로 요약했다. 공자는 이것을 덕(德)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논문(2020), pp. 264-265.

자 장 문 숭 덕 변 혹 자 완 주 충 신 사 의 숭 덕 야  
子曰: 主忠信徙義, 崇德也.<sup>101)</sup>

우리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충 신 사 의 = 숭 덕  
主忠信徙義 = 崇德

그런데 덕(德)은 앞의 절에서 확인했듯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천(天)의 본성이며 동시에 지금 ‘나’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다.

자 완 천 생 덕 어 여  
子曰: 天生德於予.<sup>102)</sup>

위에 열거된 두 개의 인용을 근거로 경제학의 원칙을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덕(德)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덕(德)을 나누는 것이다. 이 원칙을 『논어(論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자기 덕(德)에 대한 올바른 이해: 『논어(論語)』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완 군 자 회 덕  
子曰: 君子, 懷德.<sup>103)</sup>

군자가 덕(德)을 생각한다(懷)는 것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천(天)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의 행복과 부귀를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다.

② 자기 덕(德)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덕(德)을 나눔: 『논어(論語)』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완 덕 불 고 필 유 린  
子曰: 德不孤, 必有鄰.<sup>104)</sup>

자기 덕(德)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은 자기 덕(德)으로 살아가는 것이

101) 『論語』, 「顔淵」 10장.

102) 『論語』, 「述而」 22장.

103) 『論語』, 「里仁」 11장.

104) 『論語』, 「里仁」 25장.

다. 그런데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자기의 덕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로부터 자기 덕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만을 지키며 베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생명과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므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이웃으로 생각한다. 이 생각이 ‘필유린’(必有鄰)이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敵)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의 덕을 이해하면, 그 즉시 영원무한이다. 이것이 불고(不孤)이다. 이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한다.

이상, 감정과학에 기초한 ‘덕’(德)의 경제를 이해하면, 위의 두 원칙은 사실상 하나이다. ‘자기 사랑’이 곧 ‘세상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하면, 그 경제는 ‘약탈 경제’가 아니라 ‘사랑 경제’이다. 사람을 살리는 경제와 사람을 죽이는 경제는 덕(德)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경제 이론을 만들어 내어도, 덕(德)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하게 되면 그 종착역은 절망과 전쟁일 뿐이다.

감정과학이 추구하는 ‘덕(德)의 경제’는 공허하지 않다. 20세기 미국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 목사에 의해서 확인된 경제의 진리이다. 킹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온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꿀짜기마다 돌우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sup>105)</sup>

킹 목사가 말하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은 ‘① 자기 덕(德)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주님의 영광은 오직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 진실이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해가 분명할 때 사랑의 경제학이 펼쳐진다.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그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덕(德)을 나누는 한에서 경제는

105) 성동권, 『서양 현대 20세기 감정과학의 공효』 (부크크 2022), p. 378.

서로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동권은 이 사랑을 다음과 같이 감정과학으로 설명한다.

감각된 것에 나아가 그것의 생김을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으로 이해하면, 그 즉시 감각된 것에 결정된 놀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의 몸으로 시작하면 공부가 매우 쉽습니다. 지금 감각적으로 그 존재가 분명한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되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하는 본성의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면, 그 즉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진실을 알면 몸-놀이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이 진실대로 몸-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sup>106)</sup>

경제의 행복은 경제의 현상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 몸이 없으면 경제의 주체도 없다. 결국 몸이 하는 일 경제이며, 엄격히 말해서 몸이 느끼는 감정이 경제의 주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진실은 감정의 진실로부터 연역해야 한다. 이 진실이 바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성동권은 이 진실을 유교문화의 경제학으로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경제의 진리는 누구 한 사람도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그 어떤 경제 활동을 상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의 진리를 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의 진리를 정리하면, 감정과학의 경제는 ‘다 좋은 세상’의 경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따르는 경제입니다.<sup>107)</sup>

감정과학의 경제학은 자기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진리를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자 환 남 인 유 언 완 인 이 무 항 불 가 이 작 무 의 선 부 불 항 기 덕 혹 승 지 수 자 환 부 점 이  
子曰:南人有言曰,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善夫. 不恒其德, 或承之羞. 子曰: 不占而

이 의  
已矣.<sup>108)</sup>

106) 성동권, 『서양 현대 20세기 감정과학의 공효』 (부크크 2022), p. 381.

10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05.

108) 『論語』, 「子路」 22장.

위의 인용에 대한 조중빈의 번역을 보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쪽 사람들의 말에 ‘사람이 한결같음이 없으면 무당[정신치료사]이나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니 좋은 말이다. 한결같음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다. 자기가 타고난 한결같은 덕을 무시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니 하나도 제대로 하는 일없고, 남 따라 다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먹고 살지 점칠 필요가 없다.”<sup>109)</sup>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 먹고 살지 점칠 필요가 없다.”이다. 왜냐하면 ‘나’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진실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항’(恒)이다.

이 진실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예시가 ‘무의’(巫醫)이다. 조중빈은 이것을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무당’(巫)과 의사(醫)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못함으로써 비극에 빠진 정신을 치유하는 직업을 뜻한다. 생각을 타당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의 덕(德)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자기 생명의 진실에 어두운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巫)이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의사’(醫)이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이 있다.

① 몸의 진실을 영원의 생명으로 가르쳐 준다.

② 몸의 병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그에 고유한 필연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배운다.

우리 몸의 생명을 감각적 현상으로 보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몸 그 자체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천(天)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지금 ‘나’의 몸이며, 세상 모든 몸이다. 그런데 의사는 몸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직업이다. 따라서 진짜 의사는 몸의 생명을 영생으로 가르쳐주는 성스러운 사람이다. 몸이 겪는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사실은 영원의 생명이 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논점이다.

10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01.

첫 번째 논점이 분명하면, 생로병사는 몸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특히, 몸에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의 저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몸의 진실을 이해하기 이전까지 몸에서 생겨나는 병을 저주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등과 같은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몸이 겪는 생로병사를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몸이 어떠한 필연성으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지 연구하고 그에 고유한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몸에 병이나 아픈 것 보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감정의 진실이다.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참된 의사가 모든 병에 고유한 필연성을 이해하는 의사이며, 그 결과 세상에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없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보다 더 심화된다. 우리는 더 이상 병을 저주하지 않는다. 몸에서 생겨나는 병도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병의 순수지선을 이해한다. 이 이해 안에서 의사는 병을 이해하고 환자는 자신의 처지를 불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병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면, 끝내 죽음도 생명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평온하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논점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정리한 두 가지 논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자기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그 모든 직업은 근본적으로 생명과 사랑만을 보호하며 증진한다. 이것이 ‘항기덕(恒其德)’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면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자기의 운명을 맡길 필요가 없다. ‘불점이이의’(不占而已矣)라고 했다. 절대 자유 안에서 절대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덕(德)을 나누는 감정과학의 경제학이다.

## 2. 성스러운 장엄천지의 경제

감정과학으로 경제학을 하면, 빈부(貧富)는 사랑으로 교차한다. 가난(貧)은 저주가 아니며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누린다. 그것으로 자신의 부(富)를 추구한다. 한편, 부(富)는 절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가난(貧)을 무시하지 않는다. 마침내 경제 현상을 행복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경제의 진실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행복의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빈부(貧富)가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한다. 서로 투쟁하고 서로 착취하는 전쟁이다. 이러한 비극을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 일한다. 그는 노동을 그의 생활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노동은 오히려 그의 생활을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하나의 상품이다. 따라서 그의 활동의 생산물도 그의 활동의 목적이 아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은 그가 짜는 비단도 아니고, 그가 광갱에서 파내는 금도 아니고, 그가 짓는 주택도 아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생산하는 것은 ‘임금’이다. 그에게 생활은 이 활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식탁에서, 선물집에서, 침대에서 시작된다. 이에 반해 노동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가 식탁이나 선물집에 앉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게 해주는 ‘소득’으로서 의미가 있다.<sup>110)</sup>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덕(德)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자기의 절망과 불행이다. 자기의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노예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몸으로 일을 하는 노동은 덕(德)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하나의 희생물로 버리는 것이다. “노동을 그의 생활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노동은 오히려 그의 생활을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자기 덕(德)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자포자기의 절망에 빠진다. 이것이 감정과학의 경제학을 모르게 된 결과 발생하는 비극이다. “노동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가 식탁이나 선물집에 앉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게 해주는 ‘소득’으로서 의미”가 이 비극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성동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사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인간이 칸트와 헤겔의 전쟁 정신에 발목이 잡힌 결과로 살게 되는 절망의 비극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sup>111)</sup>

마르크스는 감정과학에 어두운 경제학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을 경제학의 진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미 우리에게서 행복의 경제학이 분명하다. 그리고

110) 마르크스 저, 박광순 역, 『임금 노동과 자본』 (범우사 2008), pp. 44-45.

111)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부크크 2022), p. 298.

그것은 감정과학을 기초로 삼는다. 이 진실을 어길 때 경제에 발생하는 비극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마르크스의 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경제의 진리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덕분에 감정과학의 경제학을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

감정과학의 경제학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자 로 문 군 자 자 활 수 기 이 경 활 여 사 이 이 호 활 수 기 이 안 인 활 여 사 이 이 호 활 수 기 이  
 子路問君子，子曰：修己以敬。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安人。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  
 안 백 성 수 기 이 안 백 성 요 순 기 유 병 지  
 安百姓，修己以安百姓，堯舜其猶病諸.<sup>112)</sup>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이경’(修己以敬)이다. 경(敬)으로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뜻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음이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以敬(이경)]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감각적 현상으로 지각된 자기 ‘몸’을 참답게 바라보는 것[修己(수기)], 즉 자기 ‘몸’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기이해’가 “修己以敬(수기이경)”입니다.<sup>113)</sup>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이해의 자명(自明)이 ‘수기이경’(修己以敬)이므로, 이것은 사실상 자기의 덕(德)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안인’(安人)과 ‘안백성’(安百姓)이다. 여기에서 안(安)은 엄밀히 말해서 어떤 행동이기 보다는 자기 생명의 진실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의 진실을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진실이 분명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종(從)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즉시 사람은 서로를 약탈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비극을 헤겔은 학문의 진리로 포장했다.

공동체가 갖는 부정의 힘은 안으로는 서로가 단순히 흐트러져 있는 개인의 자의를 억제하고 대외적으로는 자발적인 활동을 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개인은 이때 싸움을 위한 무기의 역할을 한다. 전쟁이란 인륜적 실체의 본질적 요소, 즉 인륜에 기초한 자기존재가 일신상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데서 누리는 절대적 자유가 현실 속에서 확연한 모습을 드러내는 정신의 형태이다.<sup>114)</sup>

112) 『論語』, 「憲問」 45장.

11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29.

114) 헤겔 저, 임석진 역, 『정신현상학2』 (한길사 2008), p. 55.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의 진실을 모르게 되면, 헤겔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은 이때 싸움을 위한 무기의 역할을 한다.”를 피할 수 없다. 이 현상을 근거로 헤겔은 급기야 “전쟁이란 인류적 실체의 본질적 요소, 즉 인류에 기초한 자기존재가 일신상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데서 누리는 절대적 자유가 현실 속에서 확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정신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이 주장하는 감정과학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상한 등식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헤겔의 ‘전쟁 = 인류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헤겔에 의한 학문의 왜곡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전쟁은 인류의 본성이며 욕망이기 때문에 전쟁이 인류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전쟁이 진리라는 것입니다.<sup>115)</sup>

감정과학의 빈부(貧富)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자기 본래의 덕(德)을 상실한다. 그 결과 “전쟁이 진리”라는 헤겔의 황당한 주장에 그 어떤 반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거짓말을 진실로 착각하는 비극에 빠지게 된다.

이 비극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학문론의 왜곡이다. 이 거대한 왜곡은 서양 근대의 학문론을 정립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에서 시작된다. 그는 『학문의 진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학과 철학을 모두 자랑이 아닌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현명치 못하게도 신학과 철학을 뒤섞거나 합성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야겠다.<sup>116)</sup>

신학(神學)은 덕(德)의 기초이다. 자기 덕의 진실을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神學)이다. 왜냐하면 천(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자기 생김의 진실과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놀이의 진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이컨에 의하면 신학은 ‘나’의 덕(德)과 분리된다. “신학과 철학을 뒤섞거나 합성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야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베이컨이 주장하는 학문의 진보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면, 헤겔의 ‘전쟁=진리’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과연 이 거짓말을 ‘학문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 생명의 진실을 이해하는 감정과학의 경제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성스러운

115) 성동권,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부크크 2022), p. 411.

116) 성동권, 『서양 중세 초기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320.

경제로 드러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이 그것이다. 이 이상으로 성스럽고 거룩한 경제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 경제가 허황된 꿈이며 실현불가능성으로 비쳐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스스로 감정과학의 진리를 우리 자신의 몸에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방법의 핵심이다.

## 제5장 결론: 현대 중국의 빈부 문제 해결

본 논문의 목표는 현대 중국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 현상으로서 빈부(貧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논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왜냐하면 빈부(貧富)가 무엇인지 그에 고유한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때, 경제 현상으로서 빈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부를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면, 해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빈(貧)은 여전히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며 부(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다.

빈부(貧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 둘 사이에 놓인 심연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빈(貧)은 뜻밖에 자기 비하에 빠지며 급기야 자포자기의 절망에 떨어지고 만다. 그만큼 빈(貧)은 부(富)에게 폭력적이 된다. 한편, 부(富)는 어떠한가? 뜻밖에 부(富)는 보다 더 큰 부(富)를 향해서 끝없는 결핍증에 시달리게 된다. 사실상 빈(貧)이 겪는 절망에 떨어지고 만다. 그만큼 부(富)는 상호간에 동시에 빈(貧)에게 보다 더 착취를 일삼게 된다.

이처럼 빈부(貧富)의 문제를 경제적 자본의 총량에 근거하여 이해하면, 결국 남는 것은 절망과 착취 그리고 전쟁이다. 이 비극 안에서 모든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빈(貧)을 벗어나 부(富)에 집착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부(富)라는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도 하나의 수단이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때 부(富)는 모든 사람에게 ‘환상의 미래’가 된다. 지금의 현재는 처절한 자포자기의 비극이지만, 환상의 미래는 모든 부(富)를 다 갖는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빈부(貧富)를 이해하며, 동시에 그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이 물음이 바로 본 논문을 집필하게 된 논자의 근본 문제의식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이때의 행복은 당연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부(富)를 행복으로 추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을 추구한 결과가 지금 현재를 처절한 결핍의 절망이라면, 어디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富)를 향한 욕망을 부정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이러한 일련의 물음의 결과 논자가 찾은 것은 부귀빈천(富貴貧賤)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부재(不在)이다. 저마다 빈부(貧富)를 경제적 현상으로만 보아서 이 둘 사이

에 놓인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빈(貧) = 악(惡)’ ‘부(富) = 선(善)’의 도식이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그에 비례하여 빈부(貧富) 모두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심연에 더 깊이 들어간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들려준다.

빈이락(貧而樂)

부이호례(富而好禮)

논자는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공자의 가르침은 경제 현상에 의존하여 빈부(貧富)를 해석하는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린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본 논문의 저자는 후자를 선택했다.

논자의 선택에 따라서 논자 자신이 한 근본적인 성찰은 연구 방법이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사유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논자는 현상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사유의 습관을 벗어나 새롭게 사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때 논자가 발견한 것이 감정과학의 논리이다. 그리고 이 논리에 근거하여 『논어(論語)』를 이해하는 문화교차학이 있었다.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은 공자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했다. 마침내 논문의 연구 방법을 세울 수 있었다.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은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몸에 고유한 본질로서 욕망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정립하는 과학이다. 이 학문은 현상에 나아가되 현상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사유하는 우리 정신의 이성애 근거하여 자명하게 이해한다.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이 학문으로 생각하고 배운 결과 빈부(貧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몸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빈(貧)으로 존재하는 몸이 사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최고의 부(富)를 자기 진실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본 논문의 제1장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자. 질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방중망(龐衆望)은 어떻게 해서 비천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을까?

②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

방중망은 ‘빈(貧) = 악(惡)’ 그리고 ‘부(富) = 선(善)’이라는 경제 현상을 해석하는 오류로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중망은 감정과학의 경제학으로 자신을 이해한다. 감정과학에 의하면 경제 현상 이전에 경제 주체로서 우리 자신의 진실을 이해한다. 이 이해는 지금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확인한다. 이 행복은 경제 현상 같은 것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 행복의 진실로 방중망은 자신의 행복을 지켰다. 그 결과 극도로 궁핍한 자신의 경제 현상에 굴복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복을 즐겼다. 21세기의 방중망은 자신의 삶으로 공자의 ‘빈이락’(貧而樂)을 증명한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감정과학의 경제를 증명한다. 그리고 이 증명에서 핵심은 감정과학의 ‘빈이락’은 반드시 경제현상으로서 빈(貧)을 부(富)로 인도한다는 사실이다. 오직 ‘부’(富)만이 할 수 있다고 간주된 일을 빈(貧) 속에 있는 방중망이 해 낸 것이다.

우리 삶의 현상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다. 이러한 삶의 무한성을 경제 현상에 집중하면, 빈(貧)과 부(富)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빈부(貧富)의 현상에 가두면, 그 즉시 삶의 불행과 전쟁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다. 경제 현상으로서 빈부(貧富) 이전에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빈부(貧富)를 참답게 이해하면, ‘빈(貧) = 부(富) =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등식을 영원의 진리로 확인하게 된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이해하면, 그 즉시 삶은 행복 안에 있다.

이미 행복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삶의 모든 순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행복이 보다 더 커지는 즐거움이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어기지 않는다. 이 즐거움은 반드시 경제적인 부(富)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하여 문명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생명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빈부(貧富)의 진실을 몸의 진실 안에서 이해하면, 그 즉시 빈이락(貧而樂)이며 부이호례(富而好禮)이다.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부터 연역되는 경제의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진리의 필연성을 조선 시대 성리학자 퇴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했다.

이 요약에 대한 성동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정리9의 증명. ||

정기(情氣)는 【정의 4에 의하여】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무한하게 새롭지만, 그 모든 정(情)은 【정리 7의 주석에 의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인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정리(情理) 안에 있다. 이러한 정(情)의 필연성이 ‘리발이기수지(理發而氣隨之)’이다. 그러므로 정(情)을 불선(不善) 또는 악(惡)으로 규정하는 오류의 가능성 또는 정(情)에 근거한 행동이 뜻밖에도 불선(不善)이나 악(惡)으로 흐르는 오류의 가능성은 오직 정리(情理)의 명명백백한 인식을 결여하는 불사불학(不思不學)의 기발이리승지(氣發而理乘之)에 있다.<sup>118)</sup>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살아가며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의 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인 순수지선(純粹至善)” 안에 있다. 경제의 진실이며, 경제 활동의 결과로서 빈부(貧富)의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 및 빈부(貧富)에 대한 개념을 감정과학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에 고유한 순수지선(純粹至善)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우리 자신은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 경제는 무한하게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발전이 가져오는 풍요와 행복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는 덕(德)을 나누는 경제이며, 성스러운 장엄천지의 경제이다.

117)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第6圖(제6도) 心統性情圖(심통성정도)」.

118)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 194: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p. 461.



## 참고 문헌

### 1. 원전

- 『성경(聖經)』 .  
『논어(論語)』  
『대학(大學)』 .  
『성학십도(聖學十圖)』 .  
『중용(中庸)』 .  
『西廂記(서상기)』 .

### 2. 단행본

- 성동권. 2018. 『유교(儒敎)의 반전평화 논리』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0. 『공자 유학의 사상적 기초로서 기하학적 사유』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고대 그리스의 감정과학』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중세 초기의 감정과학』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1. 『서양 중세 말기의 감정과학』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서양 현대 20세기 감정과학의 공효』 ,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 서울: 부크크.  
永樂大帝二世(영락대제2세). 2011. 『寒門再難出貴子(빈한한 집안에서 귀자식이 나오기 힘든다)』 . 天涯(천애).  
조중빈. 2016. 『안심논어』 .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조중빈. 2018. 『자동중용』 . 서울: 부크크.  
조중빈. 2020. 『자명대학』 . 서울: 부크크.  
조중빈. 2020. 『자명대학』 . 서울: 부크크.

### 3. 번역서

- 마르크스 저·박광순 역. 2008. 『임금 노동과 자본』. 파주: 범우사.
- 보이티우스 저·정의채 역. 2007. 『철학의 위안』. 부산: 바오로딸.
- 샌다즈 저·이현주 역. 1999. 『길가메시 서사시』. 파주: 범우사.
-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07. 『에티카』. 서울: 서광사.
-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14. 『윤리학』. 서울: 서광사.
- 플라톤 저·최현 역. 2008. 『파이돈』. 파주: 범우사.
- 플라톤 저·최현 역. 2008. 『파이돈』. 파주: 범우사.
- 헤겔 저·임석진 역. 2008. 『정신현상학2』. 파주: 한길사.

### 4. 학위 논문

- 유영관. 2020.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5. 학술지 논문

- 徐全忠(서전충). 2013. “孔子經濟倫理思想的內涵與現代價值(공자의 경제윤리사상의 내용과 현대적 가치),” 『商業時代(상업시대)』, 10.
- 성동권, 2021.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 194:4.
- 성동권, 2015.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17.
- 汪同三(왕동산)·何德旭(하덕옥), 2012. “中國經濟現狀與前景(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 『中國社會科學院數量經濟與技術經濟研究所發展報告(중국사회과학원 수량 경제 및 기술 경제 연구소 발전 보고서)』, 1.

### 6. 보도자료

- 大胡子說房. 2022. “一個殘酷的事實，疫情把中國貧富差距拉得更大了！.” <http://hous>

e.hexun.com/2022-04-14/205720170.html(검색일: 2022. 03. 24).

央視網. 2017. “龐衆望：長大成人.” <https://tv.cctv.com/2017/09/17/VIDEY3UrHMLhQTYdZL2sPaTY170917.shtml>(검색일: 2022. 02. 20).

夜闌財經. 2022. “中國“貧富差距”有多大？在全球是什麼水準？統計局給出準確數據.” <https://baijiahao.baidu.com/s?id=1721734290397090292&wfr=spider&for=pc>(검색일: 2022. 03. 01).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Poor(貧) and Rich(富) in LunYu(論語) on the basis of Science of Feelings

*by Chen.Fang*

Department of Cross-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It is possible for China to ha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development of reform. The income levels of the people improved significantly. But behind it lies the dark shadow of economic growth. How to get happy and rich, economically (貧富) can solve the problem 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 problem. Only by correctly understanding the have-nots problem through the emotion science of cross-cultural studies can we correctly solve the have-nots problem in contemporary China. Therefore, based on the emo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Noneo(論語)』 took, "Poor but happy, rich but polite(貧而樂,富而好禮)" to obtain economically happy analysis found a correct method of rich and poor to solve the problem. The fact that human happiness is not determined by economic environment or conditions can be found in various newspaper articles and papers. It is most important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whether there is happiness that we can check and protect ourselves even within the misery that we are forced to feel from economic deprivation.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find the answer to this problem as an "emotional science" of cross-cultural studies. We ourselves affirm our happiness with the utmost completeness without dependence on external conditions or circumstances. As we understand economic happiness in us, we further think about whether economic justice and equ

ality are being realized on the foundation of that happiness. The ultimate purpose is to establish a correct sense of have and have-not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have-nots to obtain happiness. Thesis is the most core economic issues in two ways: rich and poor (貧富) correct understanding. One method of study is the 'I' body. No economic activity is possible without our own bodies. Before discussing the right understanding of economics, the right understanding of my body must come first. A different research method is reason, an emotional science that seeks a valid understanding of desire. Our bodies are perceived not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phenomenon but by the understanding that the body itself is eternally living and loving. It takes emotional science to understand the truth of desire as the eternal truth of the body itself. Thus the research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truth of the body itself by learning our own body from our own mind, and also to understand the rich and poor problem with the emotional science of cross-cultural studies. The research process of this paper is mainly in chapter 2 to Chapter 4. From the second chapter 4 on the three emotions revealed the truth of desire based on science, rich and poor (貧富) feelings for scientific understanding of what. After that, the economics of emotional science revealed that the essence of happiness was to understand the truth of one's own body. Emotion science deduces the truth of the feelings the body feels from the truth of the body itself. It is the emotional science of "Analects" to reveal the truth of one's body that one understands self-evident and to reveal the truth of one's desire with it. 『 Noneo(論語) 』 bin "Poor but happy, rich but polite(貧而樂, 富而好禮)" based on the rich and poor (貧富) to establish the correct concept of zhang fei. Rich and poor (貧富) thinking, watching the two eyes (視線) is proposed. One is as an economic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the other one is emotion understanding science body within the truth of rich and poor (貧富) to understand. Only feelings rich of science (貧富) only can economic happiness and justice is the only way that conclusions were derived. Emotion understanding science poor (貧), I'm originally from eternal infinite in their life and love because no matter how any economic phenomenon poor (貧) I am absolutely happy inside. Finally, it confirms that life and love are the basis of one's exist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ich and poor of emotional science. As a metaphor of emotional science, the economy of the best world speaks of understanding the

truth. Finally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Is this paper 『Noneo (論語)』 scientific economy based on the feelings of rich and poor problem analyzed accurately. There is absolutely no economic well-being, justice and equality in the passive interpretation which relies on sensory phenomena. Only on the basis of emotional science do we truly understand ourselves, and only then do we enjoy happiness with the completeness of eternity. With this happiness, you can enjoy the economy of a good world when you understand the economy. The economy is bound to develop immeasurably if all of us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n this way. And everyone can equally enjoy the abundance and happiness that this development brings. Therefore, this paper draws the conclusion that, while solving the problem of economic haves and have-nots, how to establish the correct have-nots and obtain economic well-being only by understanding the truth about one's body with emotion science based on emotion.

Key words :

economic, rich and poor, Noneo, body, happiness

